



개교 60주년 기념호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좌로부터 李泰鎮·吳素年·趙源濟·申이할·李元一·등은 <관련기사 2~3면>

<사진 李五峰(교육학61~70) 이주대 겸임교수>

46·61·76·91·06학번 캠퍼스 데이트

새로운 60년 향해 한마음으로 힘차게 '점프'

관악출주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 서울대학교가 10월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했다.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재학생은 물론 30만 동문들도 함께 축하를 높이 들 것을 재언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서울대의 60년은 영광과 시련으로 점철됐다. 광복 다음해에 국립 서울대학교설립안(국대안)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는 혹독한 반대투쟁에 부딪쳐 고통스런 산고를 겪으며 고교성을 올렸다. 대 학로의 낭만적인 시대를 거쳐 관악캠퍼스 시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1백년, 또는 1백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사립대를 추월해 정상에 우뚝 서게 됐다. 여기에는 우리의 선배와 교수진, 그리고 동문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수립에서부터 나라의 기둥을 세우고 조국 근대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것은 서울대인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문지식, 그리고 열정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면에

사회 각계에서 서울대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 질시의 눈초리가 따가웠다. 세계 1백대 대학에도 끼지 못하느니, 학벌사회를 조정하느니 할란하는 소리도 들렸다. 우리는 이런 주변의 압력에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동경대학교의 빈의반도 인되고 학생선발에서부터 학사관리까지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국제 경쟁력이 어찌나 저찌나 하고 떠들 수 있던 말인가.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말을 모두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한다.

때마침 李展茂총장이 취임해 서울대 상징물인 교문을 희망을 뜻하는 은색으로 바꾸고, '21세기 일류대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의 발전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도약을 위해 일대 변신을 도모하려는 학교측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林光洙총동창회장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을 것을 약속했다. 이제 개교 1세기를 향해 무거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우물 안의 서울대가 아니라 세계 정상의 서울대가 되도록 삼기일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겨레와 함께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는 서울대의 앞날에 영광이 있리라. (李展茂는설위원)

개교 60주년 기념 선후배 캠퍼스 데이

“서울대가 내일의 세계를 이끈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 발표로 출범한 서울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았다. 발표는 그동안 국내외 각 분야 리더를 술하게 배출했고, 스스로도 비약적이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시각이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서울대 무용론’과 ‘서울대 흔들기’가 공공연하게 유행하는가하면, 제도적으로도 우수학생을 뽑을 변별력을 약화하는 규정을 낳았다. ‘서울대 위기론’마저 나오고 있다.

본보는 개교 첫해에 입학한 46학번을 필두로 06학번에 이르기까지, 15년 터울로 모두 다섯 편의 동문을 초청해 서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주)

·일시: 2006년 9월 19일 정오

·장소: 모교 호암교수회관 및 교정

·사 회: 본보尹在鎭는실위협(국민일보 논설위원)

〈참석자〉

·46학번 趙錫濟(조선항공46-50)세양주택 회장

·61학번 李泰鎭(사학61-65)모교 인문대학장

·76학번 李元一(법학76-80)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91학번 吳壽年(의학91-97)모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06학번 申아람(약대0601)모교 약대 기초과정 1학년

사 회: 우선 각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 무척 기쁩니다. 서울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 역사가 그리 길지 않지만, 개교 60년은 한 해를 굶고 세운 시대를 맞이하는 변곡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다나섰던 시대별로 회고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趙錫濟님께서 1946년 당시 서울대가 국립대학교로 태어날 때의 이야기부터 해주지요.

趙錫濟: 당시 경성제국대학과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상법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산전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등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6년 8월 미 군정청이 국립서울대학교설립안(국대안)을 발표하고 미국인 해리 앤스테드 씨를 초대 총장으로 임명하자 좌익 학생들이 주축이 돼, 소위 국대안 반대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합니다. 경성제대 소속 학생들은 학교를 향한 편찬화하는 작업에 반대한다는



논지였고, 기타 학교 소속 학생들은 미 군정청이 학교를 관리하기 좋도록 하나로 묶는데 우리가 왜 들어가는냐며 음모론을 제기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체로 관망하는 편이었고 나중에 서북청년단출신 중심으로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학 끝에 국립서울대학교가 출범하게 됩니다.

李泰鎭: 저는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해에 입학해서 한학기본조야비 비준된 65년에

“인성교육·인문학 강화해 명실상부한 지성인 키워야”

학부를 졸업했는데요. 그 때 역시 격동의 시절이었습니다. 한비행정렬정 이수(67년 제1기)까지 정점으로 부각되서, 그야말로 데모의 연속이었죠. 연좌농성도 다반수였다고요.

사 회: 李元一 동문은 판악캠퍼스시대 1세대죠?

李元一: 캠퍼스는 75년에 문을 열었지만, 교양과정부는 76년에 옮겨졌죠. 그래서 제가 1학년부터 판악캠퍼스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한 첫 세대입니다. 유신시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에 학교를 다녔죠. 대모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절대독재는 결국 터져 나오는 불꽃을 막지 못했습니다. 79년 급기야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게 되고 10-26사건이 나게 되죠.

사 회: 판악캠퍼스 앞에 대대병력의 전투경찰이 잔을 치고 있던 세계 최대의 파습소가 있었던 것도 유신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었죠.

吳壽年: 저희는 자유도 만끽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성한 시절이었던 때여서, 서민 계층도 별로 없었고 풍요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본교에 가만 죽었다고 딱딱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예과 시절 마음껏 놀았던 기억이네요.

申아람: 선배님을 말할 때는 걸 들으니 역사책을 들여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대학교생활이 열광적인 편이지요. 이제 차근차근 대학교생활의 틀을 잡아가려고 해요.

사 회: 사실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에 공헌하는 인재 양성이란 것이 본령일 텐데요. 서울대 하면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인재 양성소였는데 의미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요.

趙錫濟: 저는 공학을 공부해서 졸근 그 분야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당시 우리 쪽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야 하는냐가 과제였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대한조선공사에 들어가 배를 만들었는데, 12시간 2교대로 일인데 3백30일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았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동료들이 말은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가를 이루었고, 나라도 이민족 발전했지 않았습니까.

사 회: 최근 통계를 보니까 세계 10대 조선기업 중 1위에서 5위까지가 한국기업이더군요. 그걸 보면서 조선계통에 종사하신 선배님들의 수고와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머리가 숙여지는데요. 지금은 조선과 항공이 분리됐지만, 선배님 다나실 땐 조선항공 공화국이었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趙錫濟: 사실은 제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당시 몇몇 동료들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필요한 게 틀고 고민하다가 선생 대한민국의 배도 필요하고 비행기도 필요할 테니,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기투합했죠. 저의 뜻을 선생께 말씀드렸더니 꽤히 수락하셔서 일단 조선항공공학과를 창설하게 됐죠. 제가 1회 졸업생입니다.

사 회: 숨겨진 역사네요. 나선배님께선 서울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李泰鎭: 광복 후 우리 민족의 주요 과제는 역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실현이었죠. 서울대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실현하는데 ‘힘의 공극체’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에서 경제발전의 브레인이지 개인적 역할을 했고, 제도권 안팎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론 반체제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발전에 서울대가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요.

사 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대 패자굴론’, ‘서울대 폐지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분석과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趙錫濟: 단연코 말하건대,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성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도외시키고 비판과 깎아내리기를 하는 세대에 분노합니다. 이 문제는 동문 여러분이 적극 나서서 진화해야 합니다.

李元一: 대학 순위 매기기에서 서울대가 1위 자리를 빼앗겼는데 아예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국내 대학하고 경쟁할 때입니다? 옥스퍼드대,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도쿄대, 칭화대, 싱가포르대학교 경쟁해야요.

좌담자 선정 경위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는 참석 동문을 선정하는 작업부터가 만만치 않았다. 재학생을 포함한 30만 가까운 동문 중에서 도대체 누굴 참여시킬 것인가!

한 동문이 아이이어를 냈다. 국립서울대학교가 출범한 1946년 입학생 한 분과 올해 새내기 입학생 한 사람을 뽑아 대담을 시키는 제안이었다. 그럴 듯한 제안으로 수용돼 그대로 추진기로 했다.

우선 1946년 입학생 중 생존 동문의 명단을 실패하고 그 중에서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시기로 하고 다섯 명으로 압축했다. 다각적인 접촉 끝에 참여에 적극성을 보인 趙錫濟동문(세양주택 회장)이 선정됐다. 비교적 순조로운 과정이었다.

2006년 새내기 입학생 대표를 선정하는 작업은 좀 복잡했다. 4천명 가까운 새내기 중 전년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단 여학생으로 한정했다. “문사(文史)와 이공(理工)을 망라해 10명 정도의 여학생 명단을 달라”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일팔 파임’이 있다며 즉각 보내 왔다. 46년 입학생과의 장문 인배 상 인문계열 여학생이 낙점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좌담회 추진 막바지에 총동창회 수뇌부 모임에서 인원을 늘리기로 하지는 전갈이 온 것이다. 관을 다시 짜야 했다. 역시 참석자 인배가 큰 나시였다. 그리하여 1946년부터 15년 터울로 대표를 뽑기로 했다. 그 결과 61학번, 76학번, 91학번이 추가됐다.

단과대학과 진흥 분야, 전년의 인배가 역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었다. 결국 61학번 대표엔 현직 교수인 李泰鎭동문(모교 인문대학장), 76학번 대표엔 법조인인 李元一동문(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91학번 대표엔 吳壽年동문(모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이 각각 선정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06학번 새내기 역시 인문계열이어서 李泰鎭동문과 중복된 것이다. 결국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대 약학계열 새내기 申아람 양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세대별, 단과대학별, 분야별, 전년 인배가 그런 대로 조화를 이룬 구성이 됐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밖에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가 밖에 있는데, 왜 자꾸 안에서 서울대의 위치가 어떻게 저평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대 출신이나 법조계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너위에 정치 검열에 힘듭니다. 독재 시절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았습디만, 저는 우리 법대 출신이 주도하는 한국 사법시스템이 미국은 물론, 어느 나라보다 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현직 대법원의 자체나 전직 대법관들을 법정에 세우고 단죄한 나라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O.J. 살인 사건 보십시오. 그야말로 유전적 아닙니까? 요즘도 사법부의 공정성 시비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사법부,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吳壽年: 저도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재판 인프리카 미흡한 가운데서도 모교 의대 선배님들이 다져놓은 의학분야의 업적은 지금 세계와 어깨를 겨룰만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의 경우 임상분야를 전공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 바이오 기술(BT)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야말로 세계가 경쟁대상입니다. 국내에서 오로지독립할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경쟁시대에 좀더 시각을 넓히고 눈높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申아람: 아직 기초과정에 있지만, 약학 분야에서 선배님들 못지 않은 인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李泰鎮: 서울대의 위상에 대해서 공론이 많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기여한 부분들을 간파해서 절대 안됩니다. 그전 시대적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돼서 다른 대학교나 나쁘게도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대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 회: 너무 학구적인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학생시절에 있었던 낭만이나 추억을 나눠보죠.

趙慶濟: 저는 월요일이면 지금은 없어진 성동역(제가동 비아패라화점 자리)에서 출발하는 기동차를 타고 신공덕역(공릉동 소재)에서 내려 학교에 갔고, 평일엔 학교 근처의 초가집에서 쉬곤 했죠. 기동차에서 당시 상당히 희소했던 공대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말을 놓고 이야기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부럽고 신기했는지... 초가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밤새워 나리의 발전을 위해 토론했던 기억도 납니다.

李泰鎮: 저의 때는 메모는 많았지만, 수업은 배웠지 않았습디다.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슈로 한참 시끄러울 때 문헌대 정치학과 주최로 당시 金鍾泌 공화당 당의장을 초청해 토론을 벌였던 일화를 소개하죠. 학생 토론자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쏟아냈는데, 金鍾泌씨의 논리를 따라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金鍾泌씨는 경제발전의 시금석을 화두로 한일기본조약의 당위성을 설파했는

데, 참 독특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 회: 그분도 정성사법출신입니다.

李元一: 법대생이야 그야말로 법전에 코박고 사법시험 공부하는 것이 전형적인 생활입니다만, 2학년 때인가 파트너와 함께 축제는 데 처음 참석해서 농대 출신 그룹사운드 샌드 페블스의 노래도 듣고 그랬는

을 갖춰야 합니다.

李泰鎮: 제가 드림 말씀을 먼저 해주셨네요. 요즘 인문학 위기가 뭐다 하는데, 대학이, 그리고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지워버리는 데 골몰하지 않으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에선 희망이 있습니다. 아홉은 시간이 좀

경쟁은 나라이 거든요.



“서울대 법인화는 초일류대학 향한 당위적 과정”

데요.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吳壽年: 저회 때는 그야말로 태평성대여서 그랬는지, 친구들이 연애도 많이 하고 많이 놀러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의대 공부하면서 별로 힘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 회: 요즘 캠퍼스는 어떤가요?

申아람: 자신의 진로에 고민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관심과 학업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李泰鎮: 제가 학교에 있으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새 학기 들어서 어느 과목을 개설했는데, 수강신청이 세도록 느리가 났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김이무개라는 텔런트가 수강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 하고 나자 무더기로 수강 취소가 들어와 있었어요. 동명이인이었대네요. (폭소)

사 회: 후배들에게 주실 말씀 좀 해주시죠.

趙慶濟: 저는 공학도였지만, 인문학과 강의를 적극적으로 들었어. 동국대 교수였던 梁柱衡씨의 강의로 듣고 역사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서울대생일수록 인성(人性)

최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학교에서 좋은 교양과목을 많이 개설해주시면 좋겠어요.

사 회: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서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李泰鎮: 모교에 봉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서울대가 나아가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로 구체적인

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바로 미래의 서울대를 어떻게 그려 가는냐에 관한 작업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서울대는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담당해 왔습니다. 재정보장부 예산에 의존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국가 인재 양성의 책무가 사라졌고, 글로벌 경쟁시대입니다. 李元一: 동문에게처럼 옥스퍼드, 하버드대가 우리의 경쟁상대입니다. 초일류대학이 되려면 독자적인 재정 확보와 경쟁력 구축이 필요합니다. 법인화는 그 툴(tool)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문 여러분께서 모교 법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외국의 명문 대학처럼 기부도 많이 해주셨고 해야 서울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李元一: 모교에 한 가지 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생 하면 천하의 인재들이고, 왜 졸업하고 나서 영어난 마다 제대로 못하든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능한 수업부터 아예 영어로 해버리면 적어도 졸업 후에 영어 못하는 서울대생 소리는 인들지 않겠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겁니다.

吳壽年: 저는 선배님들이 이뤄놓은 의학 분야의 업적 토대 위에 또 하나의 벽을 쌓는 심정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대 인력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인 BT 분야를 충분히 석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申아람: 오늘 선배님들의 귀중한 말씀 새겨서 부끄러웠던 후배가 되었습니다.

사 회: 2006년 시점에서 바라본 서울대의 위상, 임지가 어떤 길지 않겠지만 동문 선배님들 말씀 듣고 보니 든든하고, 서울대의 앞날도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정리=尹在鎭설원원·사진=李五峰아주대 겸임교수)

좌담 진행 뒷이야기

9월 19일 낮 3시 후문 쪽에 있는 호암교수회관에 좌담회 참석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팔순의 노년배와 십대의 새내기들이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를 모신 터라 화제의 교류가 조금은 격정했다. 하지만 막상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런 우려는 한낱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예기의 흐름이 너무나 회기예에하고 흥겨운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광복 직후부터 개발독재 초기시대, 유신시대와 문민정부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60년의 세월을 아울러 ‘서울대 동문’이라는 키워드가 모두를 하나로 묶어줬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이끌어온 서울대의 저력을 반추하는 동시에 세계의 내일을 이끌 저력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에 관해 나눈 얘기는, 한바탕 한바탕이 우국충정과 모교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팔순 고향의 공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과 인문학적 소양을 유감

없이 발휘하신 趙慶濟동문. 모교 인문대 학생으로 서울대 법인화의 필요성과 과제를 설파해주신 李泰鎮동문.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서울대여야 한다 역설한 李元一동문과 吳壽年동문. 수많은 새내기이지만 길라잡이였던 대선배를 앞세워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소견을 토로하며 얘기를 한 申아람 학생.

이분들은 한결같이 자기 세대를 대표할 만한 대표선수였음을 새삼 느꼈다.

또 하나 빠뜨려서는 안될 분이 있으니 바로 李五峰(교육학(1-70)동문이다. 조선일보에서 사진기자로 근무하시다 지금 이주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李五峰은, 이날 수원으로부터 달려와 이 귀중한 기회를 영성으로 담아냈다. 李五峰은 특히 이의활형 때 몸을 돋보이지 않는 ‘구르기 전발’으로 활형에 임함으로써 좌담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후신) 귀로에 趙慶濟선배님이 조만간 참석자 전원과 저녁 식사 한번 하시고 재언하셨다.

“세계 10대 대학 목표로 장기발전계획 실행”

동문을 찾아서

모교 李長茂총장

지난 7월 20일 모교 제24대 총장에 李長茂(가계공학63-67)박사가 취임했다. 모교를 세계일류대학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각오로 숭거뿐 일정을 보내고 있는 李總장을 지난 10월 2일 관악캠퍼스 총장실에서 만나 법인화, 국제화 등 대학의 운영 계획을 들어봤다.

대답 : 본보 辛京振은실원
(MBC 선임기자)



— 개교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제24대 총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모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해에 총장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총장을 맡는다는 것이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취임하신지 두 달이 지났는데 보직교수들과 팀워크는 어떠신지.

“공대 학장으로 봉직할 때는 동질적인 업무를 했으나 서울대와 같이 큰 기관에는 이질적인 업무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동료 보직교수들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공대 학장 시절 보직교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능력이 뛰어난 보직교수와 학장, 원장 등을 만나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이월간 보직교수들과 격의없는 토론과 단합을 위해 서울 근교로 특별 워크숍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 서울대가 향후 20년간 세계 일류대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위원회’를 발족하셨는데.

“그동안 모교는 1987년 차츰총장님 재임시 만들어진 장기발전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돼왔고, 그 후에도 외국 자문화와의 해외 석학들의 평가를 받아 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발족된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학부의 모든 단과대학, 학과, 연구소가 함께 참여했으며, 공동위원장인 金福福부총장과 방대 安京煥교수를 비롯한 70여 명의 교수와 교직원들이 모교의 장기 비전과 교육 연구 학사행정, 법인화, 국제화, 캠퍼스 환경개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자 동정보에 ‘관악촌추’에서 ‘서울대 세계 32위에 올라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20년 후에는 모교가 세계 10대 대학에 오를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을 확보하고, 전조적 지식을 생산하며 세계와 인류를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대학발전계획을 만들어 가반을 다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총장 선거 당시 ‘대학의 자율성’ ‘국립

대의 정체성’ ‘대학의 재정’ 등 37가지 요소를 강조하셨고, 재정문제 해결과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법인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학교의 재정상태를 말씀해주신다면.

“지난 10여 년간 2천억원에 거의 고정돼 있는 정부의 국고지원금과 1천8백50여 억원의 기성회비, 그리고 연구비와 약간의 발전기금 지원 예산만으로는 외국의 일류대학들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4년 법인화된 동경대의 1년 예산은 2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최근 하버드대의 기금은 27조원으로 우리 대학 발전기금 2천4백여 억원의 1백배가 넘습니다.”

단과대·학과에 의사결정권 부여 재정 확충위해 법인화 신중 추진

모교가 세계 정상급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 재정, 관리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의 자율성과 유연성 그리고 효율성을 갖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획기적인 재정 확충이 절대적 조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인화가 진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논의돼야 합니다.”

— 모교의 법인화에 대한 반응은 어떨지.

“모교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계신다 하든 반대하는 분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서울대의 비전과 장기발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 이를 성취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형태의 법인화 방안을 도출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학내의 의견수렴과 정부와의 협의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말 영국의 ‘The Times’ 세계 대학 평가에서 모교가 93위에 올랐는데, 최근 평가에서는 모교의 순위가 63위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 최근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 모교 자연대와 공대를 평가한 결과 세계 10위~30위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에 반해 국제화와 학사구조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재정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법인화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정부나 교육부에서 진정으로 서울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인화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법인화에 대한 기본안은 내년 3월쯤 갖춰지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법인화로 갈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정하기 위해 자문회사에 의뢰도 할 예정입니다. 학내 의견을 모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앞으로 발전기금 3천억원을 모금하겠다고 밝혔습

의 기업과 기관에 취업한 인력의 발전에 공헌하는 졸업생을 배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제대학원의 국제지역학 글로벌전공, 경영대학의 글로벌 MBA과정, 공대 기술정책과정의 글로벌 IT 정책과정 등 영역을 포함한 외국어로 운영되는 과정들이 있으며, 서울대와 미시간대, 베를린공대가 공동으로 화상강의를 하는 등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 분야로 크게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모교 재학생들이 외국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타 대학에 비해 적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서울대가 관료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양적인 국제화를 자주 언급하는데 모교의 경우 질적인 국제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모교가 1백10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과대학, 학과, 연구소 차원에서 2백46개 대학과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특정 단과대학 및 학과간 교류가 예전부터 활발하게 이뤄져왔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를 5백개 대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해 폭넓게 학점을 딸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의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서 단기 인턴십프로그램을 수혜해 학점을 따도록 하고, 대학원 박사학위(dual degree)를 주는 글로벌과정을 확대해 세계적 영재와 국제적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 캠퍼스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시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 ‘U.S. News & World Report’ 같은 경우 reputation(명성)을 가장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명성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서울대가 국내에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국제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언어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타 대학들은 영어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 1천3백명 정도 되는 외국인 학생 수를 전체 학생수의 10% 수준인 3천여 명 이상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장학금을 통해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수강하는 과목은 영어로 강의하도록 할 생각이며, 50명에 불과한 외국인 교수도 대폭적으로 증원해야겠고, 상대적으로 위축돼있는 제2외국어도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인문사회분야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분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문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일수록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를 새로운 전문 지식을 빨리 습득해 기업에 응용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세월이

나. 기존의 모교관행과는 다른 모교관행을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미국과 가장 권위있는 시사주간지인 U.S. News & World Report의 주요 대학 평가 요소 중의 하나가 동창회의 재정적 지원과 참여라고 합니다. 명문대학들의 명성 뒤에는 훌륭하고 강력한 동창회와 동문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 후 林光洙동창회장에게 동창회 사무처가 대학 안으로 들어와서 발전기금 모금의 중심이 돼주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동문들이 예심권을 발휘하게 하려면 모교를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대학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동문들을 위한 서비스를 크게 늘려 학교 교육과 운영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제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주십시오.

“재차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제 서울대는 국내에만 안주하지 말고 세계의 대학이 돼야 합니다. 중국, 인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영재들을 교류 모야 다각적인 사고와 다문화가 융화된 지식을 배우고 세계

“세계적 영재 양성하는 국제화에 집중투자”

☑ 흘러 지금은 그러한 자식이 갖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은 모두 기초학문에 파생된 것들입니다. 생명과학, 나노과학, 한류 등이 대표적인 예이죠.

또한 과학기술이 미래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환경, 빈부격차, 고용, 윤리적·법적 측면에 있어 인문사회분야의 도움 없이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러한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여건을 개선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초교육원에서는 인문, 사회, 자연 이 세 가지 분야를 고루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학문간 융합이 이뤄져 학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리더십 센터를 신설해 외국에서 말하는 소위 시민으로서의 역할(citizen role), 국민으로서의 역할 여가에 세계인으로서 갖춰야 할 역할을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양교육 또는 전인교육이라고 할까요. 미국 시카고대의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교양학점에 좋은 책들을 선정해 반드시 읽도록 하고 있는데, 교양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는지요.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교육원에서 현재 1백개 핵심교양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2백개 과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간강사중심에서 지금은 전공 교수 및 전임대우강사들이 교양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대와 몇몇 단과대학에서 철학과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취입 후 글쓰기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가장 우수한 글을 쓴 학생 24명을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 모교가 학부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생과 학문중심주의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부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과정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겼고, 전공을 살리면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학문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되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일체의 학부, 학과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학사구조의 유연성을 갖기 위한 복안 이 있나요.

“저는 대학분부가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 의사결정권을 많이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수 승진과 신규채용에 있어 해당 단과대학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좀 개선시키자는 것이죠. 또 단과대학과 학과간 벽을 허물어서 우수학생에 대한 교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요.

기존의 관리시스템(governance system)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합니다. 제 경우 공대 학장을 5년간 정도 했기 때문에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학장의 경우, 연임하지 않는 이상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계획했던

일을 성사시키기는 사실 매우 힘들습니다.

현재 몇몇 단과대학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단과대학에서 처음으로 학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자연대에선 교수위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고, 혁신이 일어나는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수능 성적은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다양한 입학전형 방법 중 하나인 정시모집만을 보고 서울대가 논술과 면접만으로 입학생을 뽑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모교는 10년 전부터 교과성 추천입학제 등을 지켰으며, 2005학년도부터 지역균형 선발제를 통해 내신 위주의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특기자선발제를 통해 내신과 특기능력 위주의 영재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0% 정도가 여러방향을 보고 고개는 정시모집을 통한 선발인데, 수능등급만으로는 학생의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신과 통합논술 능력을 고려해서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서울대에 입학했을 때를 떠올려 고등학교의 수가 5백여 개에 불과했지만 신입생 선발을 다양화함으로써 올해는 8백46개교에서 3천2백여 명이고 우리나라에 1천3백80여 개 일반고등학교가 있고 고교당 4명 정도로 모교에 입학한 셈이죠.

앞으로는 신입생 가운데 3분의 1은 내신 위주의 지역균형 선발제, 3분의 1은 특기자선발제,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정시모집을 통해서 뽑을 계획입니다.”

— 오랜전대 모교를 방문하고 깜짝 놀란 것이 30년전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악캠퍼스가 난개발로 인해 그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캠퍼스를 조성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관악캠퍼스 나 연건캠퍼스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인건과 강원도 병행, 수월 동지에 멀티캠퍼스를 조성하고, 주변지역을 대학도시로 만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소 격의없는 대화로 스트레스 풀어

동문들과 부부동반 여행하기도

전임 총장은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고위직이나 정치 쪽에는 생각이 없으신지.

“그쪽 분야에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에 관심을 표해본 적이 없고 거리를 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울대 총장직만도 매우 중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맡았던 국립과학관 추진위원장, 과학재단 이사, 여러 학회 회장 등 거의 모든 직책을 그만뒀습니다.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 반열에 막 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이 시기에 총장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해야죠.”

— 동부한 행정경험과 뛰어난 연구업적을 고루 갖춘 공학자로 인맥도 두터운 것으로 압니다. 스스로 어떤 스타일의 총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소위 Shared Leadership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상대방을 배

려하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그리고 기초를 탄탄히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총장님을 비롯해 林光洙총장, 발전기금 朱南상임이사 등이 모두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경영, 행정면에서 공학도인의 정점을 찾는데.

“林光洙총장은 공학도이면서 타고난 최고경영자입니다. 공학도는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학과와 마찬가지로 원칙에 충실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 학장시절부터 지금까지 하신사회하게 만나는 죽마고우를 소개해주신다면.

“기계공학과 동문들과는 부부가 함께 여행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굳이 꼽자면 삼성종합기술원장을 역임한 孫郁주 임고수, 인국과학기술원의 郭南壽 등이 있으며, 고교 친구로는 金平範변호사, 동북아역사재단 金容熙이사장 등이 있습니다.”

— 총장님을 이안하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조부와 부친까지 3대가 서울대 교수이자 학자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기계공학과를 전공하지 않으셨던 현재 어느 분야를 전공하시겠습니까.

“부친과 숙부들께서 대학 교수로 봉직하셨고 남동생이 고고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만, 가족 가운데 이와 출신이 많습니다. 학창시절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화학과 물리학을 배우는 생명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을 게 사실입니다.”

— 가족 소개를 해주시오. 2남을 두셨는데.

“의류학을 전공한 아내(李玉姬)와는 종대로 결혼했고, 큰아들은 경영학을, 둘째 아들은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말에 가볍게 등산하거나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 학생들을 비롯해 서울대인의 올바른 모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다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 냉철한 이성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지적 수월성과 실천적 지혜를 갖춘 서울대인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동창회에 바라는 점이나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서울대학교는 겨레의 대학이고 세계의 대학입니다. 앞으로 서울대 동문과 동창회의 깊은 모교 사랑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저와 교수 및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모교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겨레의 대학, 세계 정상의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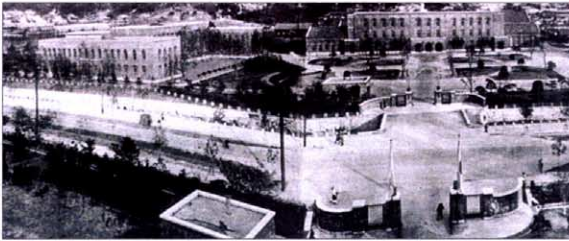
(정리= 裴鍾媛기자)

<개교 60주년 특집>

서울대 어제, 오늘



동숭동 캠퍼스 정문 석재 현판



46년 동숭동 캠퍼스 전경



49년 총체육대회 여학생 입장광경



69년 총동창회 창립기년 백걸이



52년 전시 학생증



관악캠퍼스 전경



2005년 취업박람회

<어제>

해방과 함께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탄생했다. 서모 다 른 연원과 전통을 가진 여러 학교들이 서울대학교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했 다.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과동, 한국 전쟁 당시 피난생활 등 초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대학교 는 기구를 확충하고 대학의 자치적 운영 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1950년대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틀을 잡아간 시기였다.

'미네소타 계획'과 같은 원조프로그램 을 통해 학교설비의 재건, 교육과 연구체 제의 강화가 이뤄졌다. 전후의 어려운 환 경에서도 교수와 학생들은 기상 사회의 문명과 구별되는 대학 문화를 형성했다.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눌렸 던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비판 의식도 점 차 성장했다.

1960년 4·19혁명으로 독재 체제가 무 너졌고, 그 중심에 서울대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다시 사회와 대학을 통제했 다. 하지만 1960·70년대에 학생들은 '민족'과 '민주'를 핵심 가치로 삼아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앞장섰다. 1975년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관악으로 통지를 옮긴

것은 서울대 역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관악캠퍼스의 완성으로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1980년대에 졸업정원제 실시로 인해 갑자기 식구들이 늘 어났다. 늘어난 학생들은 강의실과 식당, 도서관 등을 가득 매워 초민원을 이뤘다. 학생들의 사회 참여도 한층 고조됐 다. 이 시기부터 서 울대학교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의 육성 을 기본 방향으로 하

전쟁 후 대학문화의 틀 잡아



鄭 容 郁
(국사학79-83)
모교 60년사 편찬위
부위원장

여 여러 계획을 수립, 대학원교육을 강화 하고 수많은 연구소를 증설했다.

1990년대 들어 민주화의 성과 위에서 서울대도 연구와 교육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단계에 들어갔다. '두뇌한국21'사 업 등을 통해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이 대폭 신설됐고, 캠퍼스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교내 정보화 사업도 급속도로 진전됐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1천명을 넘어서고, 이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본교 교수와 학생, 졸업생들을 만나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세계적 대학으로의 발전은 학문과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해내 구 성원들과 사회 곳곳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졸업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원 숙기에 들어간 서울대학교는 모든 서울대인들이 힘을 합쳐서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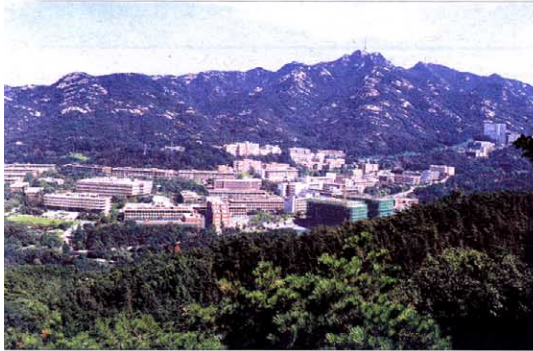
개교 60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 교정에는 희망의 움직임 과 우려의 눈길이 교차하고 있다. 대학의 역사로서는 결코 길지 않은 60년이라는 기간동안 성취한 업적에 자부심을 느껴며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희망의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도도한 세계화의 물결과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국내 의 정치·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서울대가 앞으로도 꾸준히 발 전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눈길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 난 60년 동안 서 울대학교가 이룩 한 업적은 세계 어디에 내 놓아 도 부끄럽지 않 다. 이공계열의 연구 수준을 평가하는 SCI 논문 수에서는 세계 대학 중 30위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도), 최 근 해외석학들이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의 학과들을 방문해 평가한 결과도 세계 10위~30위 수준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대학에서 연구단은 연구가 시작된 것이 30년이 채 안된 사실을



吳 世 正
(물리71-75)
모교 자연과학대 학장
물리천문학부 교수



그리고 앞으로 60년



중앙도서관에서 학구열 불태우는 재학생



일렉트릭에이션, 漢學堂(서명학020) 등론

생각하면 이러한 발전은 해외전문가들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다"고 할 정도로 빠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내외의 상황을 보면 서울대의 미래에 대하여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우리 대학도 세계 일류대학과 직접 경쟁해야 할 처지가 되었고, 실제로 학생 선발에서 과거처럼 국내의 인재를 독점하던 시대는 가고 이제는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외국 대학에 빼앗기고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 서울대가 추구하는 수월성 교육을 보는 눈길은 차갑다. 서울대 만국론이나 폐교론 같은 극단적인 주장이 대표적인 예이지만, 그 외에도 입시에서의 종합형 논술고사 논란이나 BK사업에서의 독식론 등 서울대에 대한 질의의 눈길은 항상 번뜩이고 있다. 물론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여론이 대학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을 만큼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서울대의 발전은 정체를 할 것이다.

희망의 움직임과 우려의 눈길 교차하고 있어

이처럼 국내외의 여론은 우리에게 도약과 정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 내의 움직임은 너무 인내에 보인다. 서울대학교의 비합리적인 정태 모습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부족하고, 단과대학과 개원대학의 이기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심지어 서울대학교는 '종합대학'이 아니라 '연합대학'이라는 말이 농담감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 李長茂 총장이 장기발전 계획을 추진할 위원회를 가동해 서울대의 미래를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다. 도야와 퇴보의 갈림길에 선 서울대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내일>

최근 일본의 동경대학교가 일본 최대의 신용평가회사인 R&I로부터 AAA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서울대학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법인화 3년만에 동경대학교는 여러 가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단한 재정기반과 함께 발전의 기틀을 다진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경대학교 사례를 떠나,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나날이 도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서울대학교의 세계화 전략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등 국내 명문사립에 비해 서울대학교의 국제화 수준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뒤처져 있다는 것이 세간의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이다.

사실, 서울대학교가 단과대학별, 학과별, 개인교수별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 및 학술활동을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다지 뒤진 것이 아니고, 평가에 따라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학본부가 세계대학과 맺은 공식 협정이 1백 10개인데, 단과대학, 학과, 연구소가 교류하고 있는 건수는 2백 46개로 잠정 집계됐다. 후자는 공식 통계에도 잡히지 않

는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인식의 껍질이 깨지지 않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영어강의가 하나의 사례이다. 연대는 17%, 고대는 30% 정도의 강의가 영어로 진행된다. 서울대학교는 5%, 그래도 우리 교수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교육은 '정체성'이 생명이고, 사고파는 상품

이 아니라는 인문학적 논리가 존중된다. 맞는 말이지만,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이제 세계화가 절실하다



宋 虎 根
(사회75-79)
모교 대외협력본부장
사회학과 교수

분석화된 이 시대에 한국어만을 고집한다고 외국 명문대학의 학생들이 유학을 올 것인가?

유인 요인과 매력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 대학은 '세계대학'이 아닌 '국내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내 명문사립들이 인건 송도국제지구에 앞다퉈 캠퍼스를 설립하는 진출경쟁을 서울대학교는 언제까지 비비고만 있을 것인가? 세계화 시동을 걸기 위해 총장 직속기구로 '세계화추진단'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획, 구성, 실현의 모든 과정에 동문들의 폭넓은 경험은 경험이 유입되고 동문들이 개척한 네트워크와 자원이 동원되면 '세계화 비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내 최고의 인재들을 세계인(global man)으로 키우는 것은 비단 서울대학교의 세계화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이다.

개교 60주년 축하합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 모교 위상 높여주길



宋養男 (체육교복54-58)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먼저 모교 서울대학교의 개교 60주년을 축하합니다. 필자가 1954년에 입학할 때는 우리 모교가 정말 최고의 대학으로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대학이었습니다. 필자가 졸업 후 대학교수와 예술인 두 무용기로 국내에서 활동하며 항상 서울대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는 필자와 우리 두 딸들을 포함한 30만 동문들 모두 같으리라 믿습니다.

최근 영국의 '더 타임스' 대학 평가에서 모교가 세계 1백대 대학에 들었습니다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훨씬 뒤처졌습니다. 이를 선진국 대학들에 뒤지는 것은 그보다 하더라도 일본, 중국, 홍콩 및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 낮은 것은 어쩌면 일인지 걱정스럽

습니다. 거기에 黃禹錫 교수 사건 등으로 모교의 체면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간 경제, 예술문화, 스포츠 등 다른 면에서는 세계 10위권에 가깝게 발전했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특히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우리의 모교, 명문들의 명문 서울대학교의 위상이 너무 초라합니다. 물론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대학교

단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서나 자신의 책임도 일단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모교와 신임 총장에 바라는 것은 연구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 세계 10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30만 동문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교의 발전에 힘을 모아줬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 안목으로 변화에 앞장서야



樞樞延源 (경제59-63)
이화여자 명예교수

모교 서울대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아쉬운 점 한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대야말로 국내의 최고 인재들을 받아들이며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고교졸업생 중 일등졸업생들은 모두 서울대를 가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일류 인재들을 받아들이는 학교가 어찌 세계 1백대 대학에 못 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최근에 외서는 국내 1등을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에게 빼앗기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필자는 서울대가 아닌 타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쉽게 드러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없었는 것입니다. 국내 최고인데 무슨 걱정이나 라는 생각이 서울대로 하여금 쉽게 자만에 빠

지게 한 것입니다. 이라고 있는 중에 세계는 이른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경쟁에서 1등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각국의 일류대학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생, 우수한 교수들을 뽑아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대도 역사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기존의 조직, 인력, 교과과정, 총장선출 방식, 대 정부관계, 교내인프라,

재무구조 등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 매우 혁신적인 안목으로 심사 분석을 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뜸이될 점이 많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李長茂총장께서 취임사에서 이를 강조한 것은 참 다행입니다. "담장을 허물고 열린공공체를 지향하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유연히 앞장서는 대학이 돼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며 정말 기대가 큼니다.

새로운 도전, 다시 힘을 모읍시다



宋芝華 (정치학68-73)
방송인

'서울대학교'님, 벌써 화갑이 되셨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간 얼마나 수고와 많으셨습니까. 어버이처럼 저희를 길러주신 교수님들, 어머니처럼 학교의 굵은일을 해 오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젊음이 뜻밖이긴한 했던

시절, 저는 서울대 농대에 입학했고 기숙사에서 먹은 첫 저녁 식사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처럼 자상하셨던 기숙사 사감 교수님, 텅텅한 막걸리처럼 정이 많았던 선배들, 기본 좋게 안개 진 연습실의 소나무 향을 맡으며 달리던 그 상쾌한 아침의 추억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졸업 후 87년 이는 사람이란 한나 없었 두렵던 밤 밤이 아르헨티나에 어린 남매와 아내를 데리

고 도착했을 때 달려와 품에 안아준 분들은 생면부지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김치며 먹거리들을 들고 찾아와 주신 분들, 저에게는 그분들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재학전 조급이나마 은혜에 보답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농대의 李長茂학장 초대로 오랜만에 찾은 학교, 젊은 교수님들과 농대의 위상을 하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흥

보 비디오 제작에 참여했고 학교를 제대로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수한 신입생들을 맞을 수 있었다는 학장님의 말씀에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서울대학교'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저희들을 불러 잔소리로 해주시고, 심부름도 시켜주십시오. 누구보다 먼저 집안인 이쁜이인 李長茂총장님께서 앞장서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모든 서울대인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세계의 인재를 육성하는 발판 마련



李銀榮 (행정69-73)
국회의원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의 한 바퀴를 돈다는 60년. 이 60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완결을 뜻하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일하면서 역사 깊은 서울대의 동문임을 새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곧 있을 국경장사 준비

로 서울대에 대한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60년간 서울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약을 시작할 때입니다. 국내 교육의 중심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인재를 육성하는 발판이 돼야 합니다. 자식기반 사회와 글로벌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더욱 선진화된 교육을 위해 정진하는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신한 연구 과제를 발굴해 연구 분야에서 첨예하게 있는 학계의 분위기를 이끌었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의 연구토양에서 글로벌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기능도 강화했으면 합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배움과 연구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동문인의 지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서울대는

우리 학교이다"라는 자부심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서울대, 누구에게나 사랑 받는 서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의 높은 장벽을 허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는 신임 李長茂총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행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행해의 첫 노릇을 함차게 사직해 나갑시다.

兩性 평등의 체질 만들어낼 때다



文銀媛 (식품영양79-83)
중앙일보 논설위원·여성전문기자

"문기자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80년대 초, 기자생활을 시작하던 무렵, 선배 기자와 이 한디로 소개받았던 대다수 취재원들은 쉽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굳건하기만 하던 성차별의 관행도 '서울대'란 말 앞에서 종종 위력을 잃었습니다.

서울대란 간판은 평생 덕 볼 수 있는 내 인생 최대의 보행이었습다. 하지만 취재원으로서의 서울대인은 현재로써 '비호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뭔가 뻔뻔했고 많은 이들이 권위 의식과 엘리트 의식으로 겹겹이 중무장하고 있었습다.

참다운 엘리트라면 오만할 자유가 없으며 오직 봉사의 책무를 더가졌다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

한 것 같았습니다. 뻔뻔하다는 것은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목청 높은 뻔뻔함이 아니라 부도덕을 통한 소통은 21세기의 덕목이었습니다.

耳順을 넘긴 서울대가 귀 기울여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여학생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뒤 리더로서 활약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성이 배제된 시대에

형성된 서울대의 역사와 전통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학생의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학의 문화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성평등의 체질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사회에 진출해 사회의 여러 장벽에 도전하고 고쳐나가는 에너지원이 될 것입니다. 양성평등한 대학으로 거듭 태어나길!

항상 커다란 존재

개교 60주년 축하합니다

기본과 정신을 지켜 6백주년까지



李振煥(기계공학84-89)
드림웍스 대표

우리의 모교 서울대학교의 개교 60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도 가르침을 받았던 은사하신 李長茂총장님의 위업을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모교 개교 60주년 축하 인사말을 준비하며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오늘날 서울대학교를 우리나라 자성의 신실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했다고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점점 복잡하고 치열하게 변해 가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래 왔듯이 동문들의 능력은 앞으로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교인 서울대학교는 세계 일류의 지성과 지식을 창출하고 세계 유수의 일류대학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어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동문들이 국가 발전에 주역이 돼 그 역할과 책임을 다했던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다시는 세계화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기본과 정신을 지켜 나가는 일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 서울대학교 선배님과 후배님들의 역할과 소명이 더욱 커진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세계화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만이 과거 60년간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자라는 명예와 권위를 이어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60년을 지나 6백년이 될 때까지 우리 모교의 발전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서 다시 한 번 기대해봅니다. 개교 60주년을 자축하며 동문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매마른 땅의 '싱그러운 빗줄기' 되어



河道弘(조소82-87)
공감조형연구소 대표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문득 그 기억은 모교가 개교한 지 60주년을 맞는 이 가을에 어울리는 '신선한 바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선한 바람은 우리의 모교가 아리함을 가든, 언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모교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해 모교를 찾게 만듭

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소와 하며 반가워하고 때로는 항상 안녕하기를 기원하고 악수하며 활찬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두 서울대학교를 가슴 깊이 소망합니다. 이 소망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기본 좋은 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할기는 선·후배간의 동문애 또는 스승과 제자간의 정으로 모교를 일게우는 따뜻한 포용인 것입니다. 이 포용은 나와 우리의 희망

이고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교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천하의 영재가 모교에 모여들고, 세계적인 석학 교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뒤따르고, 이에 부응하는 캠퍼스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또 재학생 후배들이 학문과 인격을 수지 않고 배우고 닦아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21세기를 꽃피우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를 축복할 때, 우리가 모교를 축복할 때 그리고 신임 총장을 축복할 때, 이 축복은 아마도 매마른 땅에 내리는 기다려진 '싱그러운 빗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빗줄기는 그와 그의 트랙을 초록으로 일으키는 '생명'인 것입니다.

부디 온 누리를 초록으로 일으키는 모교가 되길 바라며 믿음과 소망과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간판' 아닌 학구열 불태울 대학으로



金恩延(국악94-98)
문학수첩 리틀북 대표

재학시절 맞이했던 개교 50주년은 서울대학교가 반세기 역사를 거쳐왔다는 의미만을 나에게 부여했을 뿐인데 어느덧 60주년이 되고 이제는 한 회사의 대표로서 동창회보에 올릴 원고청탁을 받고

나니 모교와 더불어 필자 자신도 한층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어 감개무량합니다. 막상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동문의식을 잘 느낄 수 없었지만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동문들을 통해 졸업생이라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대학 축제상으로도 잘 나고 있지만 서울대학교의 국제적인 위상은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서울대에 입학했기 때문에 대안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를 졸업했

기 때문에 대안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학부과정에 많은 투자와 더불어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속직 간판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새 시대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발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있듯이 서울대생들이 먼저 사회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교양과 정서의 수준을 높여 주시고 외부강

의와 문화행사도 투자를 아끼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10년 후, 개교 70주년, 사람으로는 고회를 맞이하게 됐을 때 저희 후배들이 저희들보다 학업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 여러분, 학교의 역사는 학생들 스스로가 각자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는 한 편의 책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공지를 가지고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누리에 '진리의 빛' 밝게 비추기를



李承俊(의학02입)
의대 3년 재학생

개교 60주년을 맞아 귀한 지면을 허락해 글을 쓰게 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지난 60년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는 이마에, 재학생으로서 참된 서울대인의 모습과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하는 것일까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쉽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곳곳에서 빛을 내고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선배님들의 모습은 언제나 제게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후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감사함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것이 들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후배인 것 같아 다시금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지난 60년간 남겨온 발자국은 모두를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멀리 보며 바른 방향을 잡고 달리는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많은 서울대인이 그 걸음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걸음이 언제까지나,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향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칩니다. 서울대인이 된 이후로 학교를 위해 한 일은 없는데 감사할 일만 생겨 학교에 무엇을 바라는 것은 욕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욕심을 부려본다면 모교가 온 누리에, 그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대학이 됐으면 합니다.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최고에서 세계 최고로 탈바꿈



金堧浩(인문계열06입)
인문대 1년 재학생

대한민국의 인재 육성의 요람이 돼 온 서울대학교의 6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0'이라는 숫자는 참 의미가 큰 수입니다. 사람의 삶에서도 나이가 60살이 되면 '환갑'이라고 해 큰 전기를 열고 합니다. 예로부터 육십갑자를 도는 것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리

고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서 지금, 60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으로서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고등학생, 중학생들 아니,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서울대는 하나의 로망(romance)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를 방문하고, 정문에서 발자취를 남기며 서울대에 방문한 것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눈이 소복이 쌓인 서울대 정문에 손도장을 찍으며 가슴이 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대는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존재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는 결국 이뿐이지 않을까요?

'서울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제는 지난 60년간 변치 않는 사실로 남아있었고, 지금

또한 그러합니다. 이제는 그 명제에서 '대한민국'을 떼어내어 버릴 때입니다. 세계의 유수 대학들 사이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서울대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탄생 60주년을 맞는 그 날까지 아니, 더더욱 먼 훗날에도, 나의 모교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항상 커다란 존재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리나무팡

철학과 민족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1976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뒤다. 최정호대통령이 개교 30주년을 맞아 쓴 '민족의 대궐'이란 휘호가 중앙도서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사범학교 출신이라 교육을 중시하는 모양이다'라고 잠시 생각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그 뒤 오래 잊고 있던 이 단어가 가슴에 부딪쳐온 것은 신문에 실린 1990년대 중반 東京특파원으로 근무할 때다. 일본에도에서는 어느 곳에선나 '植民地 朝鮮'의 추억과 부딪친다. 재일 동포의 존재 때문이다. 일본사람들과의 토론 끝에 "당신들은 왜 일본에서조차 남북으로 갈려 싸우느냐"는 할년성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시웠다. '당신들 탓'이라고 따져 보지만 그보다 분단의 현실에 가슴이 북받쳤다.

1998년 여름 신문사 대표단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결국 눈물을 쏟았다. 약간의 긴장과 전날 밤 남쪽 때죽보다 2도 높은 온도때문에 다시 북한관계자들과 마신 '평양소주 폭탄주'의 숙취로 나는 묘향산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

스 속에서 졸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눈에 내다본 청천강변의 풍경. 그것은 남해 어느 강가와 조금도 다름없는 풍경이었다. "왜 이렇게 갈려 살아야 하나"라는 감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았다.

그러나 이후 민족이란 단어로 담겼던 나의 순수한 감정은 급속히 천덕칼이 깨기 시작됐다. 불순한 정치적 의미가 뒤섞여 汚染되기 시작하면서 서투르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에서 '민족끼리'의 원칙이 천

명된 뒤 민족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단어가 됐다. 시위현장이건, 학술회에서건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면 '絶對 善'의 의미로 통한다.

돌이켜보니 내가 알던 민족의 의미는 실은 '겨레'였다. '한 조상(단군)을 뿌리로 둔 자손의 무리'라는 정의처럼 혈연공동체 소속원이라는 소박한 감정이었던 것이다.

반면 민족이란 본래 정체불명의 단어. 1905년 러일 전쟁 후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nation'의 번역어가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오죽 민족의 의미가 복잡다단하고 빛이 비쳤으면 '민족 참내론'까지 나왔을까.

"민족은 늙은 청년가 되었다. '민족적'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言)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馬)이 되었다. '(연세대 유한식 교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민족적 열정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세계적 보편성과 맞닿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계 속의 대학'이 아닌 '민족의 대학'만으로서의 서울대학교가 21세기의 글로벌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개교 60주년을 맞아 내건 '겨레와 함께 미래로'라는 구호가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겨레를 미래와 세계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서울대학교를 꿈꾸고 싶다.

민족과 겨레

李東官

동아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자기가 '지도총이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자부심은 선 해가면 쓰나미처럼 덮어쓰기 좋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대접만 받고 책임질 일 안 할 생각이라면 그런 태도는 그릇된 것이다.

오늘날 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해결책은 없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결책이 없는 것은 문제의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실은 문제의식이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위기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롭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은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했고, 그 결과 미래의 소망이 불분명하다. 예컨대 최근의 한국정권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3분의 2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북한군대와의 對敵을 일주로 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책략을 착각 진행시켜 나갈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라의 안보에 대한 주장은 힘 없고 돈 없는 보수우익단체와 거의 노년층으로 구성된 재향군인회나 나서서 하고, 年富力強한 세대는 자신의 웰빙만 추구하면서 우익인사들을 '극우'라고 지칭할 뿐 조금도 지양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연 나

라가 지켜질 것인가?

'나는 지도총이다', '나야말로 잘못했다'는 생각도 다 나라가 지켜질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 나면 설명 외국으로 도피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량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회주의자로 국내에서 머뭇거리다가 기어이 인민군이 입성하는 날이면 킬링필드의 먹이감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날이 결코 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Noblesse Oblige'까지 찾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라면 마땅히 국가에 대한 책



金尙哲

(법학66-70)

변호사·미래한국신문 회장

지도총의 나라 지킬 책임

는 북한 정권이 향후 20년 내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제까지의 金日成·金正日 부자세습 61년 세월도 부족해 81년 이상을 金日成의 죽은 영혼의 그늘 아래 金正日的 폭정에 신음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어쩌면 손자세습까지 해서 金父子的 폭력 지배 왕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金正日정권과 공존 또는 협력해가면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의 모습으로 지탱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 나라가 과연 미래대비를 가질만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한 정권은 앞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 일방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평화선언'을 선포함으로써 金正日정권과의 공조

의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필요한 책임의식과 행동은 무엇일까?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수호의 의지, 둘째 盧武鉉정부와 金正日불량정권과의 불의하고 무법적인 공조와 음모에 대한 감시 비판, 셋째 대한민국 안보의 약화와 國體의 손상을 가져올 책략의 폭로와 저항을 통한 저지들을 할 수 있다.

나라가 지켜지려면 지도층부터 나라 지키는 데 나서야 하고, 나라 지키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밀어줘야 하는 법이다. 만일 지금처럼 나라 걱정을 하면서도 나라 지키는 사람을 비웃고 있다가는 나라 지키는 사람이 줄어들다 못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과학시대

조국의 언덕에 서서

— 서울대 개교 60주년에 부쳐

金 后 蘭(가정교과53집)

문학의 집·서울 아사랑

모든 것의 시작인 빛과 생명이
이 가을 눈부른 하늘에 아름다운 흐르나
冠岳의 숲이 온 몸짓으로 움직이고
천 마리 鶴이 일제히 날아오른다

그곳에 꿈이 있었다
높은 정신 열정의 가슴으로
남다른 자부심 삶을 끌어 올렸다

우리는 서울이라는 이름의 길 위에 서 있다
저 無限空間 우주를 가로르는
날렵한 새들처럼
길 없는 하늘에도 길을 열어간다
승기로운 창의를 길 활기차게 헤쳐가는
보이지 않는 힘

매로 전달 수 없는
치연한 역사의 지문이 찍히고
느니라 속에 알아 보이지 않는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빛이 되고 빛을 보낸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며
깊은 밤 별들이 모두 우리의 눈빛이다

세제는 변하고 있다
놀라운 전자과학 신비한 생명공학
문화예술 지식산업 환경보전 봉사활동
겨레와 함께 미래로
세제로 통하는 문을 나신다

아름다운 패지여
꿈꾸는 새여
이제 60마흔 큰 획을 그으면서
새로이 속 깊은 문화의 집을 세우고
사랑과 지성의 혼을 불어넣는다
멀리 가는 새는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희망 찬 내일을 향해서
큰 울림 조국의 언덕에 서서
우리는 힘있게 飛翔한다.



2회 동문 골프대회 성황...치대 단체 우승

張炫洙·車連澤·趙三珍등문 각 부문 1위 차지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11일 경기도 렉스필드CC에서 제2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단과대학(원)과 특별과정, 직능 및 지방자부동학회에서 참가한 동문 2백20명이 샷전방식으로 18홀씩 Mountain Lake Valley코스를 즐겼다.

이번 대회는 개교 60주년 기념과 신입 모교 李長茂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장학발달 건립기금 모금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행사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잘 진행됐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계획대로 모든 행사가 저녁 8시 정각에 종료해 참가 동문들의 귀가도 순탄하게 이뤄졌다.

오후 4시 30분 본회 許董事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은 "올해도 참가자 부담 원칙을 세워 참가자 회비와 광고 그리고 협찬만으로 대회를 진행했다"며 "집행위원회의 공동회장인 徐廷和·李吉女·孫承龍등에서 각계각층의 동문들이 끝까지 참여해 정성어린 협찬을 할 수 있도록 본회가 조성에 앞장서 더욱 흥성하고 수준 높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모교는 새로운 시대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새로 거듭나려는 변화의 회 호흡에 동문 여러분께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李御寧(국문52-56 초대 문화부 장관)등이 건배사에서 "개별적으로 빛을 발한단 동문들

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고 단합하니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됐다"며 "서울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이 자리에 다시 만났을 때 모교가 세계대학으로 우뚝 솟음을 축하할 수 있도록 모교 발전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이날 뉴욕에서 참석한 재미동창회 李典九(입학60-64)수석부회장이 축사에서 히로나카 4대로 모차르트의 경쾌한 세레나데 "Eine Kleine Nachtmusik"을 들려주었으며, 보스톤의 李秉必(기계공학72졸)등은, 전북지부동창회 등 각 지회 동문들이 참석해 더욱 친목을 돈독히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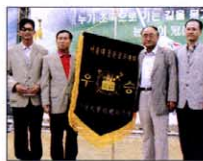
朴榮敏(체육교육62-66)경기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진 본상 시상에서 함께 239타를 기록한 치과대학동창회가 멋진 팀워크로 대표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우승기와 기념품을 받았다.

대표팀 개인전 우승은 76타를 친 張炫洙(SGS 147)등에게 돌아갔다. 준우승부터 4위까지 77타 동률을 이뤘으나 연장자 우선 방식을 적용해 순위를 가렸다.

남자 친선팀에서 車連澤(약학67-74)등, 여자 친선팀에서 趙三珍(기약58-62)등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또 76타를 친 孔輝榮(금속공학62-70)등문과 본회 李吉女(의학51-57)부회장이 남녀 메달리스트에 올랐다.

남녀 통계스트에 294야드를 친 李範俊(수의학78-82)등문과 200야드를 기록한 金玉蓮(간호66-70)등문이 선정됐다. 남자 니어리스트상은 1.2m를 기록한 金度宣(법학60-65)등문, 여자 니어



대표팀 단체우승 치대동창회



대표팀 개인우승 張炫洙(左) 등문



친선팀 남자우승 車連澤(左) 등문



친선팀 여자우승 趙三珍(左) 등문

리스트상은 申美江(간호64-68)등문이 차지했다.

남녀 감투상은 李御寧등문과 白月娘(간호59-63)등문, 남녀 행운상은 원로가수인 崔嘉準(행정54-59)등문과 본보 朴聖姬(가정관리73-77)는설위원이 받았다.

한편 대표팀 3위를 기록한 姜太星(AFB 17)등문이 유일하게 이 글을 기록해 참가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날 Mountain 7번과 Valley 6번홀에서 출신원을 기록할 경우 프라이머모터스에서 부상으로 승용차 렌터카 3505 1대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설계도 이날 출신원은 나오지 않았다.

林光洙회장 전자기야노 기증

시상식 진행 중 본회 鄭八道(AIP 17)부회장이 林光洙회장에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10억원 약정서를 전달했으며, 전북지부동창회 명의로 金聖吉(법학60-64)회장이 1천만원을 쾌척했다. (판권기사 15면)

경품추첨에서 삼성전자 尹鍾龍(전자공학62-66)총괄부회장이 협찬한 PDP 42인치 TV는 韓世熙(치의학73-79)등문이 당첨됐다. 또 삼익악기 金鐘燮(사하의법66-70)회장이 협찬한 전자키보드는 본회 林光洙회장이 당첨돼 현 마포회관에 신축될 장학빌딩에 기증하기로 했다.

(表)

각 부문별 수상자

▲대표팀 단체전

△우승: 치과대학동창회 羅炳宣(69-76)·姜泰榮(71-77)·韓世熙(73-79)·林鍾昊(82-88) 등문, △준우승: 공과대학동창회 申春植(기계공학57-61)·孔熙珠(금속공학62-70)·郭淳泰(토목공학63-70)·南泳雨(화학공학71-75) 등문, △3위: 패션산업학과경영학과정동창회 姜太星(17)·鄭錫泳(3기)·鄭錫半(47) 등문.

▲대표팀 개인전

△우승: 嚴滋榮(SGS 147) △2위: 姜吉勳(철학65-70) △3위: 羅炳宣(치의학69-76) △4위: 姜太星(AFB 17) △5위: 姜泰榮(치의학71-77) 등문.

▲남자 친선팀

△우승: 車連澤(약학67-74) △2위: 金度一(HPM 97) △3위: 馬泳準(법학62-66) △4위: 郭淳泰(AMP 32기) △5위: 朴義鳴(AMPFRI 47) 등문.

▲여자 친선팀

△우승: 趙三珍(기약58-62) △2위: 徐桂華(기약56-60) △3위: 朴敏愛(간호66-70) △4위: 韓世熙(치의학91-95) △5위: 金孝孝(AIP 29기) 등문.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林光洙(기계공학48-52) 본회 회장; 일금 5백만원·개교 60주년 기념 머그컵 2백50개
· 徐廷和(약학51-55) 본회 부회장; 일금 4백만원
· 李海連(행정51-55) 본회 부회장; 일금 1백만원
· 崔斗衡(행정51-55) 본회 부회장; 일금 1백만원
· 李吉女(의학51-57) 본회 부회장; 일금 4백만원·무선 커피포트 2백50개
· 朴熙白(의학51-57) 본회 부회장; 일금 1백만원

· 李金鎔(약학55-59) 본회 부회장; 아로나니 골드SET 2백50개
· 李煥鎔(경제56-60) 본회 부회장; 일금 1백만원
· 金鐘燮(치의학56-60) 본회 부회장; 일금 2백만원
· 孫承龍(법학57-61) 본회 부회장; 일금 4백만원
· 洪性大(수학57-63) 본회 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일금 3백만원
· 河權鎔(의학57-63) 본회 부회장; 일금 2백만원·골프백SET 2개
· 李載學(법학58-64) 본회 부회장; 일금 1백만원
· 許鎮奎(금속공학59-63) 본회 부회장; 우산 2백50개
· 孫吉宗(상학59-63) 본회 부회장; 위키일호별 외식상품등 5대
· 朴英俊(상학60-66) 본회 감사; 일금 1백만원
· 尹鍾龍(전자공학62-66) 삼성전자 총괄부회장; PDP 42인치 TV 1대
· 朴榮敏(체육교육62-66) 고려대학교수; 골프도시·드라이버 2개
· 金鐘燮(사하의법66-70) 삼익악기·SPBC 회장; 전자키보드 1대
· 尹汝女(농공학67-71) 동양물산 부회장; 고급 양식기SET 10개
· 申義寧(잠사학69-76) 금산양행 대표; 모자 2백50개
· 韓榮錫(금속공학77-81) 프라이머모터스 대표; 볼마크·Tee 2백50개
· 柳 津(영어영문78-83) 본회 부회장; 일금 1백만원
· 金光石(AMP 38기) AMP동창회장; 스크립 2백50개
· 金有煥(AMP 54기) 한미스프츠 대표; 골프백 9개·패터 및 우드 2개·드라이버SET 2개·골프공 및 모자SET 2백50개
· 呂振東(AMPFRI 17) AMPFRI 동창회장; 일금 1백만원
· 辛熙現(GLP 3기) GLP동창회장; 일금 2백만원

서울대동문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 서울서 마포구 도화동 18-2 (121-812)

편집인 孫一權

· 전화 (02) 702-2233 팩스 (02) 703-0755

편집주간 許 璣

· e-메일 smu@korea.com

논설위원 金哲泰, 朴世熙, 林炳斗, 南仲九, 金鐘顯, 李炳均, 安錫禧, 丘月煥, 宋錫鎔, 金好俊, 洪性高,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義準, 李元廣, 金鍾勳, 文昌益,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煥, 姜天淵, 嚴基永, 朴時勳, 李廷現, 尹在錫, 鄭世浩, 李東植, 朴奎德, 曹明錫, 朴勝俊, 許承憲, 金玄浩, 鄭興實, 李東京, 趙在龍, 金鍾顯, 李若武, 李相起, 鄭恩珍, 蔡祥玉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지 裴智敏, 金南柱, 朴昌龍, 鄭國芳, 金千鶴

후배사랑 장학기금 기부철학 실천

南正鉉회장 5천만원 출연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대우 엔지니어링 南正鉉(건축57-61 본회 부회장·前장대동총회장) 회장(사진)이 본회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3천만원을 출연한 데 이어 8월 30일 2천만원을 추가로 보내오에 따라 '南正鉉특지장학회' 명의로 총 5천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南正鉉이 출연한 기금은 장학발달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천만원 출연 붓물

지난 9월 25일까지 전북지방부동장회(회장 金聖吉), 반도합동법률사무소 咸正鎭(형정53-57)변호사, 金元培(동물학55-60)前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전무, 김&장 법률사무소 李載亨(법학58-62 법대동창회장)대표변호사, 모교 국제대학원 李啓宇(형정58-63)초빙교수, 수도CAC 宋明鎭(광산학59-65)대표, 나라통상 許盛吉(경제60-64)대표가 본회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각각 1천만원을 출연했다.

기금을 출연한 동문 또는 단체는 개인이 원하는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며, 장학발달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表)



교보생명 愼昌宰회장 10억 쾌척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교육 필요”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후배, 어느 날 수십억원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그 다음날 일을 망개치고 여행을 떠나는 대신 묵묵히 자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후배에게 장학금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14일 교보생명 愼昌宰(의학72-78)회장(사진 左)이 본회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쾌척하기로 약정하고 먼저 5억원을 출연했다.

앞으로 장학발달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금을 통해 '愼昌宰특지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산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

고 있는 愼회장은 “기업경영에 쫓기다 보면 사회공익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기 어려운데, 林光洙회장님께서 장학발달 건립기금을 출연하면 수익사업을 통해 모교 재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기꺼이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돈 버는 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남을 위해 보람있게 쓰는 데는 관심이 적었다”며 “이제 한국도 경제대국이 됐으니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돈을 바르게 버는 것과 바르게 쓰는 것에 대해 균형 있게 배워나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본회 鄭八道부회장 10억 약정

“특별과정 동문들도 많이 동참하길”

지난 9월 11일 코리아랜드рам파니 鄭八道(AIP 1기·AMP 26기 본회 부회장)회장(사진 左)이 부인 李慈幸여사와 함께 본회에 장학발달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여 '鄭八道·李慈幸특지장학회'로 운영기로 약정했다.

그동안 3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지난 99년부터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온 鄭회장은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이 꼭 필요한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평가를 베풀고 나면 흥겨우면서도 짜릿한 기분을 맛보게 된다”고 말하는 鄭회장은 20여년간 범죄예방 민간봉사활동단체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

서 평생보호자들을 선도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앞장서왔다.

또 AIP동창회 로타리클럽과 AMP동창회 라이온스클럽 회원으로 관악캠퍼스 주변지역인 신림동과 봉천동을 돌며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鄭회장은 “林光洙회장님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해외지부를 순방하며 동문들에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장학발달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아 건립기금 출연에 동참하게 됐다”며 “AMP, AIP 등 특별과정 출신 동문들의 더 많은 참여와 지원이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교 보직교수·冠賞會 간담회

언론계 동문의 모교 지원 강조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1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모교 보직교수 및 관악언론인회(관언회) 간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언회와 모교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모임은 李長茂총장 및 신입 보직교수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모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林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법인화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의 획기적인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를 위해 모교와 총동창회 그리고 관언회가 하나가 돼 나가자”고 말했다.

李총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교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동문들과 관언회 여러분의 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모교 발전계획과 관련해 李총장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



해서 최근 향후 20년을 향한 ‘장기발전계획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위원회에 속한 70명의 교수들이 우리 대학에 적합한 법인과 방안을 구상하고 변별력 있는 인사제도, 국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언회 安秉勳회장은 “모교 출신 언론인들이 그동안 모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있던 게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모교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된다는 생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孫一根상임부회장·崔生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李致雄부회장·朴英俊감사·許 璽시무총장·모교 李長茂총장·金福福부총장·金完鎭교무처장·李政宰학상처장·韓 棟賢구직장·金孝俊기획실장·梁承穆대학신문 주간 등이 참석했으며, 관악언론인회 安秉勳회장·南仲九부회장·李炯우부회장·金仁圭간사장·朴明珍감사, 동창회보 金鎭網·文昌吉·尹在錫·李秉權·朴聖姬·許英奎·李東寅은설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좌로부터 姜信高·李容秀등원, 金義洙교수와 부인 김경선 씨, 金龍煥·李康鎭·黃浦官등원

모교 출신 축구스타 한자리에 “20년 전엔 高大도 켜졌지”

“아 그때 (황보)관이 네가 골을 넣었지? 우리가 고려대를 이길 때도 있었는데...”

“에 맞아요, 교수님”
모교 출신으로 국가대표까지 했던 축구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9월 18일 서울 노보텔엠베서드호텔에서 열린 모교 金義洙(체육교육65-64)교수 정년퇴임 기념연.

모교 축구부의 ‘대부’ 金교수를 축하하기 위해 李康鎭(체육교육77-81)서울체고 감독, 李容秀(체육교육77-81)세종대 교수, 姜信高(체육교육78-82)대한축구협회 기술감독, 金龍煥(체육교육81-85)중앙대 교수, 黃浦官(체육교육84-88)일본 오이타트러니타 유소년육성부장 등 모교 축구부가 잘 나가던 시절 스타들이 다 모였다.

黃浦官부장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스페인 경기(1-3 패)에서 캐논슛을 터뜨린 캐논슈터의 원조. 姜信高회장은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대표. 李康鎭감독은 회장 총무시절인 1980년 총무팀으로 활약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대표를 지냈던 金義洙(체육교육81-90)서울 방일장 감독도 참석했다.

서울대 축구부 출신으로 축구대표를 했던 원년의 축구스타는 모두 10명. 이들은 이날 1986년 11

월 9일 대학 최강 고려대에 4-1로 이기는 등 활약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姜信高회장은 “오랜만에 다 모이니 자연스레 옛날 얘기가 많이 나왔다. 특히 1978년 대학연맹전에서 동아대를 2-0으로 꺾고 사상 첫 승을 거두던 얘기 등 너무 즐거운 한 때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대한축구협회 鄭泰泰(정제70-75 본회 부회장)회장은 “서울대가 고려대를 이겼다는 게 사실이나”며 짝짝 놀랐다.

모교 출신 축구인들은 1970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 축구부의 역사를 정리해 ‘카펫의 추억’이란 책도 출간했다.

(동아일보 梁鎭久(체육교육89-93)기자)

전기동문회

2백여 가족 모교 방문

전기동문회(회장 鄭泰泰)는 지난 9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2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출퇴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은 회장단 가족을 뵙게를 만끽하며 선술배 동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전기동문회는 푸짐한 경품과 음료를 준비해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金炯珠등원 제정한 松山賞 崔義昭·柳雄鎭등원 수상

지난 9월 1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토목학회(회장 차봉浩) 제5회 松山賞 시상식이 열렸다.

松山賞은 대한토목학회 원로 회원인 삼안코퍼레이션 金炯珠(토목공학45-50 관악회 이사)회장이 토목기술 발전과 토목원 양상을 위해 2002년 사자 72억원을 출연해 제정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차權根 前KBS 사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한국도로공사 孫鎭來사장 등 각계인사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좌로부터 張漢東씨, 柳雄鎭등원, 崔仁浩씨, 崔義昭·金炯珠·朴昌浩등원

올해 수상자로 학술부문에 고려대 崔義昭(토목공학59-65) 명예교수, 기술부문에 SK건설 柳雄鎭(토목공학68-72)대표, 문화부문

에 소설가 崔仁浩씨, 언론부문에 헤럴드경제신문 張漢東부장이 선정돼 각각 상금 2천만원과 상패를 받았다.

松山 金炯珠회장은 한국수문학회 회장, 한국언론지아학회 진흥협회 회장,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 본회에 장학발당 기금으로 10억원을 약정하는 등 장학사업에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기계동문회

10월 21일 박람회 개최

기계동문회(회장 金 哲)는 지난 9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지나 어우서스에서 李長茂총장 취임 축하연을 겸한 제2회 이사 및 기별 간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李長茂총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계공학과 출신의 모교 총장 취임을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공대인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에 부합한 자부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李長茂총장은 “林光洙총장회장님을 비롯해 모교 발전기금 朱鍾韓상임이사 역시 기계공학과 출신”이라며 “우려한 일이겠지만 더욱 합심해 모교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세계제일 기계공학식’ 시창인으로 1주와 10만 원을 최고 단위로 하는 구체적인 모금 방법과 유도 등을 설정했다.

또 박람회(SNUME EXPO)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학부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1회 박람회는 10월 21일 전기총회 후 관악캠퍼스 301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南)



李元靉



개교 60주년, 새로운 탄생!

2007년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를 제작했으며, 더 붙여 ‘탁상용 캘린더’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께 10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丁亥年の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기재하여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사무처

신임 동창회장 인력부

농생대 동창회 韓仁圭 회장

(모교 농생명공학부 명예교수)

지난 9월 9일 농생명과학대학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모교 농생명공학부 韓仁圭(축신52-56) 명예교수가 선출됐다. 신임 韓회장은 “교수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동문 제자들과의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동창회 활성화를 이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교수가 동창회장직을 맡는 것은 처음 일인데,

“통상적으로 동창회장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처음에는 돈도, 능력도 없어 못하겠다고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네요. 그동안 동창회 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했으니 그간의 잘못을 만회하자는 심정으로 수락했습니다.”

— 동창회 규모가 꽤 크죠.

“공대, 사대 다음으로 회원이 많을 겁니다. 2만3천명 정도 되니까요. 1948년에 설립됐으니 역사도 오래됐죠. 하지만 각 회원간, 각 학과 동창회와 연결이 느슨해요. 상대, 공대만큼 재력

— 회비 중대 반입은.

“새 임원진이 구성되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만 부회장, 이사 진영을 노년·중년·젊은 층으로 나눠 골고루 분포시키고, 각 학과 동창회장들과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생각입니다. 또 대학원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국농대 농생대동창회는 매년 5천만 원 내지 1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모교에 기부합니다. 모교에서 필요로 하는 데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큰 도움이 됐든 모교를 위해 순수한 보답을 했으면 합니다.”

韓회장은 모교 졸업 후 미국농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계축산학회장, 한국과학기술인 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한림원장을 하는 동안 1백20여명의 건립기금을 유치해 본당에 독자간을 올 짓기도 했다. 가족 가운데 차녀(韓美姬 서울고대 강사·대학원92-94), 3녀(韓美善 한양대교수·가정관리85-89), 사위(金載根 모교 교수·생물교육83-87), 며느리(白惠媛·체육교육87-91)가 동문이다. (南)

“기금액 두 배로 증진시키겠다”

가가 많지도 않고 대다수의 동문들이 셀러리맨이란 구조적인 난점에 갇혀 있고, 그래도 전임 회장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참여자가 늘었으며 회보도 속간하고 장학금 사업도 펼칠 수 있었던 게 다행입니다. 기반을 닦아 주셨으니 이를 바탕으로 회비징수에 박차를 가해야죠.”

제자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해야죠. 목표는 기금수준을 지금의 2배로 올리는 것입니다.”

— 목론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아는데,

“장년 퇴임 후 2000년 2월에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받았으니 배분해서 살자는 뜻에서 설립했죠. 매년 중국농업대학교와

연변대학농학원 학생 그리고 모교에 유학 온 중국학생 등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제학술비로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바라는 점,

“모교에 도움을 줄 때는 모교의 입장에서, 모교가 필요로 하

농생대 동창회

백주년 기념 ‘변화를 위한 도전’

농생명과학대학 동창회(회장 尹勳煥)는 지난 9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 잔디밭에서 농학교육 백주년 기념 상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모교 李長茂총장, 농림부 차관 梁煥장관, 학생독립운동의 효시로 불리는 1928년 ‘수원고농 학생사진’을 주도한 陸東白(임학28-31) 동문을 비롯해 일반인 동문 부부 20여 명 등 사백여 동문이 참석했다.

1부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한국과학기술인협회장을 역임한 모교 韓仁圭(축신52-56) 명예교수를 추대했다.

또 제4회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자로 金俊輔(농학38졸) 前 한국경제학회장, 성보실업 尹大燮(농공학49-55) 부회장, 재미동창회 李典九(임학60-64) 수석부회장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상록의 날 행사를 마친 동문들은 문화관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백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모교 朴孝根(농학59-63) 명예교수의 “농학교육 백년의 발자취” 강연을 듣고 정동애출판사와 모교 남성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

농림부 차관 梁煥장관, 모교 李長茂총장의 인사에 이어 본회 林光洙회장은 “우리나라 농업발전 뒤에는 모교 농생명과학대학 그리고 동문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백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백년 또한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하기를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수상자 李典九(左) 동문, 尹勳煥회장

농생대 李經濟회장은 “Challenge for Change라는 표어처럼 지난 백년을 돌이키며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되자”고 말했다.

올해 백 번째 임학생인 남재경 양은 “21세기를 주도할 생명공학, 생명화학의 중심에는 우리 대학이 있다”며 “새로운 백년을 이끌어 나갈 학문에 청춘과 패기를 바치겠다”고 말해 동문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동승클럽

林明珍도서관 강연

문리대 65학번 동기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裴吉勳)은 지난 9월 7일 서울 성북구 현충로 6층에서 가을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모교 林明珍(불문65-69) 중앙도서관장이 연사로 초청돼 ‘일본 대중문화의 세계화와 韓流’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배 문리대가 열리고 있는 세미나에는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강연과 함께 세미나 후 유희로 인목을 도모하고 있다. 동승클럽은 10월 28-30일 일본 가나자와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다. (南)

동문 작품 전시회

李鶴淑 作

‘산수유’, 한지에 수묵담채, 55×39cm, 1994.



<작가약력>

- ▲54~58년 모교 회화와 졸업.
- ▲74년 한일 순수작가 100인전
- ▲78년 번시자·이학술 부부전
- ▲89년 현대미술인협회전 호우수작가상 수상
- ▲94년 현대미술협회회전
- ▲96년 뉴욕 캄브리지 갤러리 초대전
- ▲00년 서울대 미술 재전전
- ▲02년 한국미술협회전
- ▲03년 개인전 5회
- ▲04년 호주대사관 초대 한국 현대미술전
- ▲05년 중국 섬서미술관 초대전
- ▲현채 대한민국선도협회 표지작가

제9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많은 후보자의 추천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불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환
3. 추천서 접수: 1) 접수마감: 2007년 1월 31일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7년 3월 16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화제의 동문

모교 교수 특재 2호 洪成赫박사

30대 유일의 생물물리 권위

지난 7월 30대 나이로 모교에 특별채용 때 화제를 모았던 洪成赫(물리89·94)동문이 2학기 강의를 시작했다. 洪교수는 "얼리노이드 박사후 과정에 있을 때 한두 달 가르쳐본 경험은 있지만 실제 강의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본 교재가 없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하지만 즐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집물리 특강으로 교수가 주제를 정할 수 있어 생물물리학의 기초 지식을 가르칠 계획이다.

洪동문은 모교에서 물리학 석·박사학위를 받은 '도종박사'로 2002년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후(포스트) 과정부터 새로운 영역인 생물물리학 분야를 공부했다. 생물물리학의 선두주자인 캘리포니아대 하버드(물리86-90)교수 아래서 생물물리학 영역 중 하나인 생체분자(biomolecule) 분야를 연구해 왔다.

생물물리학은 물리학을 생물학에 확대 적용해 생명현상의 본질을 물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영역으로 최근 바이오산업의 급부상과 함께 각광받고 있다.

모교에서 洪동문을 특별채용한 것은 채용경쟁이 치열한 신생 분야의 경우 원칙대로 공채를 고집해 시간을 끌다가는 눈앞에서 우수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다.

"제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 실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이 분야를 공부한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희소 가치가 높았던 것이죠. 사실 5년 전 생물물리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당시만 해도 물리학과 생물학이 전혀 교류가 없는 분야였으니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고 싶은 열망만 갖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었죠."

洪동문이 과학자의 꿈을 키운 것은 초등학교 때이다. 당시 TV프로그램 중 '과학자 칼 세이건'이 쓴 책을 바탕으로 만든 '코스모스'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었다고.

"그리스 시대의 과학부터 갈릴레오 이야기, DNA 나선 모형,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와, 저런 게 있구나'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막연하게 과학을 공부해야겠다, 물리학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金大植교수 영향, 꿈을 현실로

제주 남녕고 1회 졸업생인 洪동문은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교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막상 입학 후에는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 80년대 후반 대학가는 데모 등 사회운동이 한창인 시절이었다.

"대학 때 수업에 거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안 했어요. 대학시절 저를 아는 사람들은 모교 교수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분위기 속에서 과학이란 게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데모 대열에 뛰어들지도 못하고 주변인으로 맴돌았죠. 개인적인 고민, 이성문제... 방황의 시기였죠."

대학 졸업 후 적당히 회사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그동안 꿈을 놓고 산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해 보고 안 되면 그때 회사 취업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그때 金大植(물리81·85)교수가 洪동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대학원 진학 후 金大植교수님 실험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교수님의 운영 방식이 제 성격이랑 잘 맞았어요. 교수님이 어떤 일을 주면 1백% 맡기는 스타일이예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볼 수 있었죠. 실험장비도 만들고 이것저것 실험해보면서 연구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 늘 고마운 마음이지요."

이번에 모교로부터 교수 요청을 받았을 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오래 전 金교수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한국에 기회가 있을 때 들어 올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지킨 것이다. 사실 洪동문이 미국의 풍요로운 연구환경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다. 여유로운 생활환경이나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도 한국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주위에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고국이란 생각에 마음이 편해요. 미국에서는 살아남아야지 하는 생각이 강했는데 여기서는 다 잘 해와지라 생각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 학기에 洪교수 수업을 듣는 학생은 30여 명. 생소한 분야라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다. 하지만 그 중에 생물물리 분야를

아를 해와줬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많지 않은 듯 싶다.

"교수님 중에서도 생물물리학 하던 거라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학생들은 더 그렇겠죠. 우선 책을 낮춰 줄려고 하고 있어요. 물리학자들이 생물학에 기여한 역사적 예들을 설명하면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물물리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등 동기를 부여해 확실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생물물리학, 듣기만 해서 이해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모교에서 처음 가르치는 분야이기도 하다. 생물물리학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까?

"생물학에 툴(tool)을 대입해 생명체의 이해를 넓히는 학문이지. 생명체가 모두 분자로 이뤄졌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지를 물리학적 방법을 대입해 이해하면 세포가 이해되고, 더 나아가 생명체가 이해되는 것이죠."

조금한 풍토에선 노벨상 불가능

洪동문은 말을 이어가며 과학이 당장에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 뭔가 보이는 결과물을 요구하는 세대에 대해 아쉬워했다.

"요즘 과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부자를 하면 바로 성과를 요구하죠. 논문평가도, 질이 아닌 양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창의적인 연구대신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연구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런 풍토에서는 노벨상이 나오기 힘들죠."

洪동문은 요즘 강의 준비와 실험실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책, 서류도 많다. 변변한 교재가 없어 한 시간 강의를 위해 하루를 꼬박 바쳐야 한다. "대학원생 때보다 박사후 과정에 있을 때가, 박사후 과정 때보다 지금이 딱 두 배 바쁜 것 같다"고 말하는 洪동문. 그래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며 제2의 캠퍼스 인생을 살고 있다. (南)

Noblesse Oblige

대한구강보건의학회 李在賢들론

장애인 치과진료 자원봉사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나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건강해진 모습은 나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니, 이런 값진 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10년, 봉사활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질문에 대한 李在賢(치의학50-56 前대한구강보건의학회 회장)동문의 대답이다.

이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천사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렇게 치과의사가 됐으니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남을 돕고 싶고 싶었을 뿐입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였다.

10년간 1만4천명 치료

대학 졸업 후 모교에서 2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고 단국대 치대학장으로 10년간 봉직한 李동문은 그때의 인연으로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천안 문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李동문은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오직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의미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남을 도우며 사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임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봉사활동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다고.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이 바로 지금의 서초구 장애인치과병원에서 하는 무료 진료다.

“모두가 알다시피 장애인은 몸이 불편해 행동 하나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거기에 치아까지 손상돼 음식조

차 제대로 맛볼 수 없다면 얼마나 서러운 일이지요?”

“몸은 불편하지만 먹는 즐거움까지 잃지 않도록 돕자”는 생각에 장애인 무료 진료를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장애인을 위한 치과병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면 것이 적진 서울에서 건립한 서울시립장애인전문병원을 포함, 매년 늘어나고 있어 기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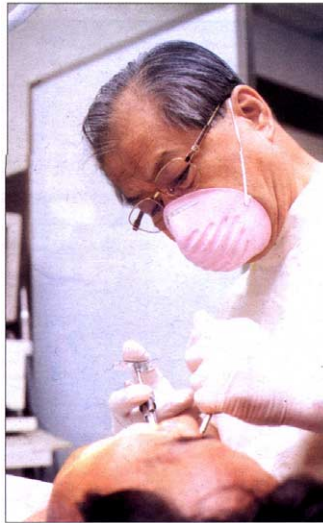
이유인즉 이런 신실 전문병원을 그야말로 “그림의 떡”으로 바리볼 수밖에 없는 장애인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들의 경우 진료비조차 커다란 부담이 될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려운데 병원만 여기저기 생겨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소외감과 거부감을 갖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라면 진료비도 저렴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장애인이 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李동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초구 장애인치과병원에서 더욱 큰 보람을 느낀다고. 35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은 현재에 있거나 은퇴한 의사와 간호사들로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본인이 원해서 하고 있는 일인만큼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치료비를 일반 치과병원보다 절반 이상 낮게 책정해서 받고 있다.

여기에 편견 없이 환자들을 바라보고 치료해주고 있어 환자들로 하여금 ‘내 집보다 편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며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다.

덕분에 한번 치료를 받았던 장애인 환자는 계속해서 이곳을 찾게 된다. 그렇게 지



금까지 이곳을 다녀간 장애인 환자의 수는 1만4천여 명.

이 많은 환자 중에는 몸의 불편한 상태가 심각해 치료할 때마다 4명의 성인이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치료시간도 일반환자에 비해 1~2시간에서 길게는 3~4시간까지 소요되는 환자도 있다.

李동문은 그런 환자의 경우 조금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출겨운 이야기를 모아 들려준다며 부디 한번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끼리 깨끗이 나아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작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환자 생각하면 힘이 솟아”

“몇 년 전 잊혀지지 않는, 아니 잊혀질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치아를 모두 발치해야 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 분의 생활 형편은 몹시 어려워지려요는 도저히 인공치를 할 수 없었죠. 그 환자 소원이 ‘죽기 전에 음식 한번

제대로 맛보는 것’이라고 해서 결국 그분 소원대로 인공치를 해드렸더니 몹시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얼마동안 그 환자와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공치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소원을 이뤄드렸으니 말입니다.”

이렇듯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과 정성은 작년부터 李동문에게 ‘實’이라는 격려로 돌아왔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고 작년에는 함께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기쁨의대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에 대해 묻자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너무도 기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새기겠다”며 겸손함을 보였다.

여러이 가까이 나이, 자택인 일산에서 서초구 장애인치과병원까지 약 2시간을 오가며 진료를 하다보면 조금은 힘들 법도 한데 李동문은 자신을 찾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어느새 힘이 솟는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도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낯선 시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여건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 둘씩 바꿔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에게 ‘평생을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싶겠다’는 李동문의 따뜻한 마음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자.

(熙)

공트 릴레이

침묵을 흔드는 바람

崔 文 億

(본명 崔慶林·지리교육54-58)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대 시진’이라는 간판 아래 ‘새콤달콤한 그녀의 섀도’라는 김교 해설적인 간판이 겹치기로 붙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자와인을 물에 희석한 듯한 붉은 자줏빛이 아늑한 양장으로 다가온다. 희薄的한 조명등에 눈을 익히고 서 있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천가 구석자리에 박상자 씨가 앉아있다. 낯선 곳에서 만나느 낯익은 얼굴은 각별하다. 양자 씨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니자이나다. 그녀는 두 학기 등록으로 마감한 가정대학교 동문 선배다. 그런 인연으로 그녀의 패션쇼에 놀라웠고, 파리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다. ‘플러시 21’이라는 패션 화보를 찍기 위한 파리 행이라 했다.

그녀가 앉은 테이블로 가기 위해 층이 진 양탄자의 어둑한 통로에 한 발을 내리는 순간 무언가 내 뒷발치를 꼭 잡아챈다. 카운터 뒷벽으로 눈이 간 건 커다란 흑백 액자 위에 걸린 매 같기도 하고 갈매기 같기도 한 새의 바체. 이미 사물화된 그 날짐승의 두 눈이 불을 물고 있어서였을 것이다. 섬뜩한 전류가 등골을 타고 내린다. “저런 책 식당에 걸려두다니, 얍기야.” 중얼거리며 양자 씨의 맞은 편 자리에 가 앉는다.

“보셨군요. 나도 오늘에야 발견했지 뭘 나. 오래된 흑백사진이라 잘 못 알아 봤는데, 자세히 보니가 김진민 씨, 맞죠?” 나는 잠시 어리둥절하다. 내가 바라본 건 박재현 씨의 빨간 눈인데, 양자 씨는 벽에 걸린 커다란 흑백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카운터 뒷벽에 걸린 커다란 흑백사진, 영정사진을 연상시키는 김교 두터운 나무테에 갇힌 사진 속의 다섯 사람, 심장을 향해 쇠뿔을 내리 박는 듯한 어린 톱장갑들이 일제히 아우성치며 달려든다. “진리”라는 두 글자 위에 부조된, 이 대학의 트레이드마크인 열쇠의 조각상 앞, P의 졸업식 날 불어분분하고의 소위 진리들이 스스로 명명한 선후배들이 어우러져 찍은 사진이다. 그들은 낯익고 고맙다. 3월 28일, 잔뜩 흐린 하늘엔 비도 아닌, 눈도 아닌 진 눈발비가 내렸고 제강 운동가 양자로 느껴질 정도로 추웠다. 키가 크고 윤곽이 선명한 P의 오른팔에 매달린 게 나. 왼쪽 팔에 활짝 붙어있는 쪽이 바로 김진민, 그녀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았고, 누구로부터 연결됐는가 하는 문제는 숙물처럼 사소한 추측물이 아니었다. P가 나에게 친구도 애인도 아니었듯이, 김진민에게도 그냥 어정쩡한 관계의 미로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었던 장편인이었을 것이다. P와 내가 차곡차곡 쌓아올린 시간의 부피

를 두고 그가 내게, 혹은 내가 그에게 ‘소속됨’을 전명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그랬다고 해도 P의 모든 선후배들은 공 공연히 알고 있었다. 재네를 지껄게도 붙여 다니네, 혼자서 식당에도 가면 왜 혼자냐고, 내 뒤를 살펴봐 그 부재에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했다.

“어디 불편하신가 봐요. 얼굴이 영 아니네요.” 휘청거리며 걸어가 있는 나를 양자 씨가 엄려스러운 얼굴로 바라본다.

“저 사진이 왜 여기 붙었을까요?”

회미한 웃음기를 깨문 양자 씨의 얼굴이 아래위로 끄덕거린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 놀라실 일이 있을 겁니다.”

양자 씨 앞에 붙어있는 칼을 끌어당겨 한 모금 목구멍으로 흘려 내자 발포성 백포도주가 편도를 쏘른다. 건조한 비행기 안은 늘 목에 염증을 일으킨다.

P의 졸업식 날 밤, 술 한 방울 입에 넣지 않고 맨손맨손 앉았던 김진민은 장이 고장 나서 미안하고, 미리 선물을 한 상 태었다. P 역시 평소 때와는 달리 술을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 판악캠퍼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에 그들 두 사람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파주임 환공소가 뜻밖이라는 얼굴을 했다. “뭘했냐?” 어학연수 갔어, 어제 인사를 들렀다군.”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사진으로 내 앞에 서 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내가 끌어안았던 침묵은 그들이 내편개치고 간 배신의 속물성 때문이었다.

불어분분하고에서 문자는 단연 독보적인 존재였다. 열타에서의 첫날 거자 빛 활명한 스펀터에 경쟁적 바지를 입고 긴 생머리를 어깨 위에 흐트러뜨린 문자는 자기소개 대신 엘리엇의 ‘초원의 빛’을 원어로 낭송했다.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 문자는 고개를 쳐들고 결연한 어조로 그 말을 했다. “난 존재의 그늘에 살지 않고 햇빛 바른 양자에 살기 위해, 반드시 내 삶의 햇빛을, 내 것으로 사수하기 위해 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서울대라는 이 공간이 내 삶의 바위에 돼 줄 겁니다.” 했든가, 모두들 입을 딱 벌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여기요. 강 사장님. 여기 누가 와 있는지 보세요. 기절하지 않을까, 몰라.”

우리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보헤미안룩의 세련되고 멋스러운 여자, 늘씬한 키, 커다란 타원형의 코고리, 주렁주렁 매단 목걸이이며, 김진민이 분명하다. 늘 그랬던 것처럼 김진민이 내 존재의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유입된다. 흐르는 물

처럼, 거스름이 없는 동작으로, 9년이라는 먼 간격을 무시한 채 회고 고른 차이를 활짝 열어 반가움을 머금은 요정 같은 얼굴로, 두 팔을 커다랗게 벌려 덤벼 나를 안으며 불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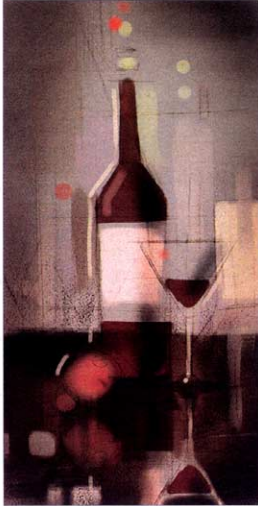
“진민아, 정말 오랜만이다. 아홉 년 그 대로야. 10년 전 그대로라니까, 이 통통한 뺨이여, 지나치지 않은 소박함까지. 하루도 널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면 믿어줄까.”

나는 의자 끝에 엉덩이를 내린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시기, 내 삶의 중동을 단칼에 베고 달아난 그 현혹스럽고 기증스러운 존재가 나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노라 읊조리고 있다.

“너, 김문자-여기사,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러나 그 말은 소리를 삼킨 채 내 안에서 북대거릴 뿐이다.

“그래, 그래. 이야기는 밤새도록 하고, 우선 먹어야지.”

주방 쪽으로 가면서 와인이며 음식을 시



일러스트레이션 黃淳亨 (서양화022) 동문

키는 문자의 궁글거리는 듯한 불어가 네 컷가에 이렇저렇기 서적거린다.

학부 3년 동안, 우정은 한갓 표피적 둘레였을 뿐, 내 내면의 실상은 늘 괴롭히고 질려들 생각에 차오를 겨를이 없었다. “지민이 넌 천사야. 우리의 우정은 필요와 인식을 위한 걸치레가 아니라, 우리를 여러 영혼을 꼭꼭 싸안음 조차도 같은 예술품이지.” 라고 했던 김진민.

이런 말이 있었다. [학기 종강하던 날이 있을 것이다. 관악산 등산길에 걸린 하늘은 파랗고 초목들 풍겨 놓은 듯한 서늘한 그들은 싱그러웠다. 그런 화사한 풍경이 아니더라도, 비록 그곳이 초토화된 황량한 폐허라 할지라도 관악캠퍼스라는 프리미엄 만으로든 거긴, 젊은 피들의 천국의 대를 아니었다. 청바지 입은 문자와 하얀 민소매 원피스를 짧게 입은 내가 잔디밭에 앉아 노닥거리는 일당의 남학생들의 입질에 오르내렸다. 파리 걸인가? 여기가 무슨 패션 쇼장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지-문자가 내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화내지 말고, 유머로 응수해.” 그리고는 내 귀에 그 말들을 입력시켜 주었다. “이 찬란한 여름 잔치를 축하하기 위한 의상, 뭘 문제 있

어?” 그 순간 모두들 고개를 쳐들어 하늘과 나무들과 관과 지락에 폭 파묻힌 캠퍼스의 그 절대의 우월성을 만끽하고 있었다.

“강 사장에게서 조금 들었어요. 막 선생 남하고 파리에 가는 왔지만 1년도 안 돼서 그분은 뉴욕으로 가셨답니다. ‘대 시진’ 시작하기 전까지 고생 많았어요. 초기엔 여행사 가이드도 했는데, 그때 만났지요. 객실객실해 봐는 걸보가완 달리 장이 많고, 마음이 여러 것 같아요. 늘 지민 씨 이야기를 하던데요. 자기가 문명적인 때들이 가 된 건 누구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영원히 방황하는 화란인이랍니다. 술 마시면 울어요.”

나는 세차게 고개를 흔들다. “울어요? 김문자가 운다고요? 어림없어요. 눈물 같은 게 흘릴 사람 아니에요.”

어둑한 구석에서 불꽃 나타난 김진민이 하얀 봉투를 내린다.

“많이 기다렸지, 이제 파나 바우어의 ‘봄의 재전’ 티켓. 10년을 축하해준 선물. 유쾌하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티켓이야.”

내가 그 공연을 보고 싶어한다는 걸, 아마도 양자 씨한테서 들은 모양인가, 오만 가지 감회와, 수많은 단어들에 깨물린 입술 안에서 거품처럼 부글거린다. 입술이 안 떨어진다.

“너도 알겠지만, 요즘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파나 바우어의 안무 정도는 꼭 봐야겠지. 무용수들이 추주고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연기자가 돼 수많은 삶의 파편들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유, 육체의 완벽성에 대한 콤플렉스의 표현기법은 아주 탁월해.” 어색한 분위기를 어우러려는 듯 양자 씨가 끼어 든다.

“이 새콤달콤한 섀도 무슨 소스인지 오늘도 기필코 그 비결을 공개해야 돼요.”

침묵이 이어지고,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와인만 홀짝인다.

“뭘하고 말 좀 해 지민아!” “이전 내 생존의 확대이고, 삶의 방편이야. 그래, 나도 망쳤어. 너도 알잖나. 전임지리라는 게 바늘구멍 해집고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그 참통같은 문턱에 다리를 걸고 있었던 거야. 불어와 즉속함,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정작 불어가 들어가 있는 학과가 몇 개고요? 뭐든, 그깟 높은 학사 졸업장 지지고 뭘 해봐요? 고급 박사만 바가지로 쏟아내는 그 엘리트대학이라는 명칭조차 험오스러웠어. 펜으로 잔리의 불을 밝히고 월계관을 머리엔 얹은 우수분자들이며, 다섯 명도 좋고 열 명도 좋으며 전임 출신에 걸신처럼, 주제를 남발하던 사회학자 ○○교수의 그 DNA 예찬론은 정말 가관이었지. 너희들의 그 음울한 고독관념이나 천년이 지나도 부식되지 않을 비단 같은 편견 나무껍질, 늘 거리고 아웅 하는 식의 도덕이라는 것도 너희들 가진 자들의 천용성 같은 방어벽이었지.”

결코라고 강력한 어투로 말을 쏟아내던 김진민이 나를 향해 각지게 돌아선다.

“무슨 말이라도 좀 해라. 지민아, 입술에 본드 붙었나?”

“그만해. 자기 합리화가 지나치면, 위선보다 더 위험한 해악이라는 말바가지들 쓰게 돼.”

와인으로 마른 입술을 적서 보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 한 자락에 잔잔히 스며드는 새콤달콤한 그녀의 섀도 향이 부어오르는 편도를 지그시 눌러준다.

‘장기발전계획 위원회’ 발족

세계 일류 도약위한 20년 비전수립

모교 소식

모교는 지난 9월 13일 21세기 세계 일류대학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향한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장기발전계획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연구활동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7년 3월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20년 장기발전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법인과 등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국립대 장기발전 계획을 포함해 모교가 추구해 나갈 비전들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金信福부총장과 법학부 安京煥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운영위원회와 비전총괄 본과(위원장 철학과 白瑞鎭교수)·학사기획 본과(위원장 농생명공학부 徐鎭浩교수)·연구 및 국제화 본과(위원

장 의학과 洪性台교수)·법인화 본과(위원장 정치학과 朴贊郁교수)·캠퍼스 및 정보화 본과(위원장 환경대학원 黃琪源교수) 등 5개 전문분야별 본과위원회, 외부 자문 위원회로 구성됐다. 위원회 위원 은 총 70명이다.

위원회는 기존 장기발전계획 분석과 기본전략 수립 등을 거쳐, 첫 단계로 10월 13일 개교기념식에서 장기발전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이후 각 단과대학 및 부속 시설 등 학내 협의는 물론 정부 및 대외기관과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포지엄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술관

‘미술교육 60년’ 기획전 열어

모교 미술관(관장 鄭基民)은 개교 60주년을 맞아 ‘대학과 미술-미술교육 60년’이란 주제로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획 전시회를 마련했다.

20일 개막식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李長茂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60주년 기념 전시회를 축하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지난 60년간 모교의 현대 미술교육 역사를 돌

아보고 대학 교육 현장에서 제자 및 후배들을 지도해온 교수들의 작품 60여 점이 미술관 전관 및 야외 전시관에 소개됐다.

초창기 미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張勳 초대학장의 유화 ‘김대건 신부상’을 비롯해 李碩石·張潤淵·金鍾瑛·金世中(조소50番) 교수의 작품, 추상 한국화의 시대를 연 徐世珩(회화46-50)·李鍾祥(회화59-63)교수에서 현재 재직

중인 金保京(회화74-81)·申慶享(동양화83-91)교수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金煥基·劉永國·張旭熙·柳景琛·丁昌燮(회화46-51)·文學魯(회화49-52)·尹明哲(회화56-60)교수 등 추상이나 구상 부문에서 국내 외적으로 한국 회화의 수준을 끌어올린 작품, 1950년대 한국 추상 조각의 시기를 연 金鍾瑛교수부터 이어지는 조각가들, 디자인 교육을 도입한 閔哲源(응용미술54-58)교수의 작품 등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鄭基民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미래 교수진의 비전, 가치관, 창작 활동을 조명하고 나아가 한국 현대 미술의 흐름에서 미술대학이 기여한 바를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술관에서는 9월 14일부터 매주 목요일 ‘현대미술 감상에서 투자까지’라는 주제로 일반인을 위한 ‘사회교양강좌’를 연다. 강의를 무료이며 미술관 내 강당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문의 : 880-9504)

(南)

모교 세계대학 63위 ... 30계단 올라

지속적인 국제화 노력의 결실로 평가

세계 대학 순위

영국 ‘더 타임스’ 선정

모교(총장 李長茂)가 영국 ‘더 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2백대 대학에서 63위에 올랐다.

지난 2004년 1백18위, 2005년 93위로 우리나라 대학 중 최초로 1백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올해 30계단이나 비약한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특히 개교 60주년을 맞아 일궈낸 이번 성과는 모교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려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교는 올해 더 타임스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와 교수 대 학생 비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료평가는 지난해 47위에서 44위로 올랐으며, 교수 대 학생 비율과 국제기업의 대학평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 타임스는 동료평가(40%), 연구영향도(20%), 교수 대 학생 비율(20%), 국제기업의 대학평가(10%), 외국인 교수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 등을 바탕으로 매년 세계 2백대 대학을 선정해오고 있다.

중국 자오통대, 미국 뉴스위크 평가는 노벨상 수상자와 외국인 교수 및 학생 등 국제화 지수에 높은 비중을 두어 모교가 저평가 돼 온 반면, 더 타임스는 동료평가, 연구영향도 등 질적 평가에 중점을 두어 모교의 평가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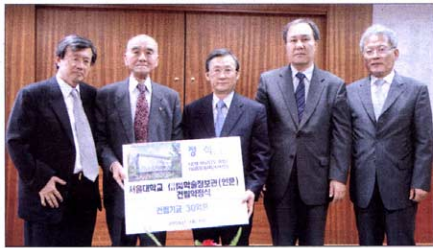
더 타임스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Peer Review는 세계

순위	대 학	작년 순위
1	하버드대(미국)	1
2	케임브리지대(영국)	3
3	옥스퍼드대(영국)	4
4	MIT(미국)	2
5	예일대(미국)	7
6	스탠퍼드대(미국)	5
7	캘리포니아 공대(미국)	8
8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미국)	6
9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영국)	13
10	프린스턴대(미국)	9
14	베이징대(중국)	6
19	도쿄대(일본)	15
63	서울대(한국)	93
160	고려대(한국)	164
198	KAIST(한국)	143

각지의 3천7백3명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우수 대학 30곳을 선정한다. 국제기업의 대학평가는 세계 7백36명의 채용 담당자의 답변을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모교 南基民학부실장은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세계 10~30위권 해외석학평가, 2005년 SCI 세계 30위 등 서울대가 커다란 성과를 얻고 있음에도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돼 왔다”며 “이러한 서울대의 우수성이 이번 평가에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는 물론 외국 우수 대학과의 교류협력 확대,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지속적인 국제화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예산이나 연구비 대비 모교의 연구성과는 세계 일류대학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



좌로부터 모교 李康鎭(화공학과),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모교 李長茂총장·李麟仁 前부총장·權斗煥대학원장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인문학술관 건립금 30억 전달

신양문화재단 鄭哲圭(화공학과 48~52 판악과 이사)이사장은 지난 9월 8일 인문대학 교수회의에서 신양인문학술정보관 건립금 30억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이로써 鄭이사장이 모교에 기부한 총액이 1백7억9천여 만원을 넘어 개인기부자 중 최고액 출연자가 됐다.

鄭동문은 그동안 공과대학 신양학술정보관 건립금 31억원, 의과대학 의학연구기금 12억원, 동창회 특장장학금 3억원 등을 출

연했으며 모교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번에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건립해 헌납하기로 한 것이다.

신양인문학술정보관은 현 인문대 4동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올 12월에 착공해 내년 10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의과대학(학장 王圭彰)은 지난 9월 25일 연강캠퍼스 병원 본관 1층에서 鄭哲圭이사장의 의학연구기금 출연을 기념하는 부조상 제막식을 거행했다.

鄭範鎭 명예교수 사대에 1억 출연



지난 9월 19일 사범대학 교육학과 鄭範鎭(교육학45~49) 명예교수(사표)가 모교 사범대 교육연구재단(이사장 曹永達·사범대 학장)에 장학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사범대학은 이날 11동 3층 교수회의실에서 출연식을 열고 鄭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鄭교수는 모교 교육학과 교수와 한림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술원 회원과 한림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대학원장에 朴泰鎭 교수 선임



지난 9월 22일 모교 국제대학원장에 국제학과 朴泰鎭(경제71~75)교수(사표)를 선임했다.

차원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립대에서 석사학위, 위스콘신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후 조지타운대 조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97년부터 모교 국제지역인 교수로 봉직하면서 국제지역인장,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선배님, 아세요?

나양한 상정물 ①

개교 60주년 기념

홍보타워

모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미래 디자인학부 白明鎭(응용미술72~79)교수가 설계한 홍보타워, 가로 6.4m, 세로 3.56m, 높이 6m의 다면체 조형물(A-Type·재료 나무, 표면 실사출력).

관악캠퍼스 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좌측 잔디밭에 세워져 있으며 연강캠퍼스 정문과 관악캠퍼스 후문에도 B-Type의 홍보타워가 설치돼 있다.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

31개 팀 참가...세하고출신팀 우승



제13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에서 세하고출신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9월 19일~29일 열흘 간 관악캠퍼스 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작년보다 12개팀이 늘어난 31개 팀이 참가해 각축전을 벌였다.

19일 개막식에서 본회 孫一枏상임부회장은 林光洙회장을 대신한

대회사에서 "93년 본 대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우려도 있었지만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감개무량하다"며 "각 고교 출신 동문 선배들이 야구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고 모교에 대한 애교심을 쌓아 가는 전통적인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葉)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모교기부금내역	
학술기금	1천만원(1987)
공대 교육 연구재단 연구비	7천만원(1988~1997)
엔지니어하우스건립비(공대)	3억원(1984~2000)
신양학술정보관 건립비(공대)	31억3천3백13만2천원(1999~2004)
관악회 특장장학금	3억83만4천원(2000~2005)
공대 연구재단 끝나무 장학금	2천4백원(2002~2003)
화학실험공학부 시상기금	2억원(2003~2005)
신양학술정보관 시설비	3천만원(2004)
신양공학술기금(시상금)	13억원(2004~2005)
정보문화기금(교수초빙)	12억원(2005)
연준정보학과 수리비	2천5백만원(2005)
명예교수 지원비(매뉴얼발간)	5백만원(2005)
신양의학연구기금(외대)	12억원(2005~2006)
신양인문학술정보관(인문대)	30억원(2005~2006)
합 계	1백7억9천7백76만6천원

정년교수 프로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1명의 정년 기념식과 전기컴퓨터공학부 金元熙교수, 예방치과교실 文赫秀교수, 보건대학원 金仲熙교수의 명예퇴임 기념식이 지난 8월 31일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千禧禧교수·영어영문학과

62년 모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에 전임 강사로 부임, 미국문학 및 미국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아메리카학회장, 모교 미국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任李承熙교수·고고미술사

65년 모교 고고인류학과를 졸업, 미국 텍사스대에서 문학석사, 일본 큐슈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고고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고고학회장, 대학박물관위원장, 모교 박물관장을 역임했다.



金承熙교수·사회학

65년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호주국립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사회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사회학회장, 모교 사회과학연구원장·여성연구소장을 역임했다.



李承熙교수·인류학

65년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미국 라이스대에서 인류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77년 모교에 조교수로 부임, 인류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인류학회장, 모교 관악사 사장·인류학과장을 역임했다.



李承熙교수·지구환경과학

63년 모교 물리학과를 졸업, 미국 파츠버그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조교수로 부임, 지구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지구물리학회장, 모교 자연과학대학 학장보·지질학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李承熙교수·지구환경과학

65년 모교 전문기상학과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이학석사, 오레곤 주립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조교수로 부임, 대기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기상학회장, 모교 기상학과장을 역임했다.



金承熙교수·간호학

64년 모교 간호학과를 졸업,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 연세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간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재직기간 중에는 모교 간호대학장·간호학과장을 지냈다.



李承熙교수·간호학

64년 모교 간호학과를 졸업, 미국 보스턴대에서 간호학석사, 연세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2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간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간호교육학회장, 대한트레이닝학회 이사장, 모교 간호대학장을 역임했다.



李承熙교수·경영학

63년 모교 상학과를 졸업, 미국 콜롬비아대에서 경영학석사, 위싱턴대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경영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경영정보학회장, 한국경영학회장, 모교 경영대학장을 역임했다.



金承熙교수·경영학

64년 모교 상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상학석사, 미국 인디애나에서 경영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경영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인사·조직학회장, 모교 노사관계연구소장을 역임했다.



金元熙교수·전기공학

72년 모교 전자공학과를 졸업, 독일 이센데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조교수로 부임, 전기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재직기간 중에는 모교 전자공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金元熙교수·식품생산

66년 모교 농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농학석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농학박사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작물생리학·잡초병리학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잡초학회장, 한국작물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金元熙교수·조경지역

65년 모교 회화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학위를 받았다. 75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조경미술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재직기간 중에 한국조경학회장, 모교 조경학과장을 역임했다.



金元熙교수·법학

63년 모교 행정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대구대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행정법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한국공법학회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모교 부총장·평의위원회장을 역임했다.



金元熙교수·불교교육

65년 모교 불어불문학학과를 졸업, 프랑스 프로방스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모교에 조교수로 부임, 불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불어불문학회장, 프랑스어문교육학회 편집위원장, 모교 불어교육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安永熙교수·지구과학

65년 모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 일본 동경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조교수로 부임, 해양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지구과학회장, 해양학회 이사, 모교 사대 학장보를 역임했다.



金元熙교수·체육교육

64년 모교 체육교육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체육학석사, 한양대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체육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특수체육학회장, 모교 사대 학장보·체육연구소장을 역임했다.



李在澈교수·국악

63년 모교 국악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음악학석사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국악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아시아음악교류회장, 모교 음대 학장보·동양음악연구소장·국악과 학과장을 역임했다.



金元熙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75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마취학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재직기간 중에 대한마취학회 이사장, 대한치과위생학회장을 역임했다.



金元熙교수·의학

66년 모교 의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75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흉부외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재직기간 중에 대한흉부외과학회장, 모교 의학연구원 실장연구소장을 역임했다.



金元熙교수·보건학

67년 모교 간호학과를 졸업,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석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보건정책관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모교 보건학과장을 역임했다.



南賢熙교수·치의학

65년 모교 치의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석사·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치과교정과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치과위생학회 부회장, 대한치과정교학회장, 대한구순구개열학회장을 역임했다.



南賢熙교수·치의학

67년 모교 치의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석사·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구강내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구강내과학회장, 대한두개하악 장애학회장, 이세아두개하악 장애학회장을 역임했다.



文赫秀교수·치의학

77년 모교 치의학과를 졸업,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87년 모교에 전임강사로 부임, 예방치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재직기간 중에 대한 구강보건학회장, 한국구강보건인 이사장을 역임했다.

동문기자 회재수첩

신임 중기특위위원장에 대한 우려와 기대

지난 9월 20일 오후 9시쯤, 부서 당면 이어서 회사에 남아 있다가 귀가하려고 스피커를 켜고 무렵에 문자메시지가 하나 날라 왔다.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廉正植 신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내일 오전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니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안 그래도 이날 오전 중소기업청과 중기특위로부터 각각 廉위원장의 취임식에 대한 취재협조 공문을 받고 의아해 하던 차였다. 취재 내용이 '취임식'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간담회나 인터뷰 일정은 공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기자들에게 취임식 틀러리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취임사를 들으려고 파견에 있는 기술표준원까지 갈 수는 없었다. 전화로 내용을 물어보니 '취임식 후에 티타임이라도 갖지 않겠냐'는 막연한 대답이 돌아왔다. "좀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그 정도만으로는 기가 아깝다"고 전화를 끊은 후 한참 후에 돌아온 피드백이 바로 간담회 시간이 들어있는 문자메시지였다. 아마도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져서 부랴부랴 간담회 일정을 잡은 모양이었다.

'취임' 첫날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기자들을 부른다'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보통 정부기관이나 부처의 장으로 취임하면 시차를 두고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기 마련이다. 취임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됐더라도 업무나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향이나 비전을 내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날 오전에 잡혀 있던 다른 취재 약

속부터 취소했다. '보은 인사'나 '코드 인사'니 하며 한창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廉위원장을 제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廉위원장은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에서 나와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대전광역시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그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수장(장관급)에 올랐으니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했다.

필자가 廉前대전시장이 중기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은 '보은'보다는 '그가 적임자일까?'라는 의문이었다. 전임 위원장인 崔鎭鎭 당시 산업기술포럼장은 지난 2004년 4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이천·여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된 후 4개월여 만에 중기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당시에도 보은 인사란 얘기가 나왔지만 곧 찾아들었다. 崔총장은 상공자원부 출신인 특허청장과 산자부 차관을 거쳤고 중기청 초대 차장으로 일하면서 중소기업 정책에 정통해 중기특위 위원장으로 적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廉위원장은 중소기업과 관련해 이렇다 할 경력이 없었다.

다음날 기자간담회 자리. 역시나 "스스로 위원장 자리의 적임자로 생각하시나"는 공격적인 질문부터 나왔다. 廉위원장은 "한발에 총장 재직 시 장영보육과 산학협력에 매진했고 대전광역시장을 지내면서 다목적특구를 건설한 경험 등이 있어 중



宋泰亨

(신문학90-95)

한국경제신문

과천벤처중기부 기자

소·벤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대답했다.

필자는 중소기업 정책과 문제에 대한 廉위원장의 시각이 궁금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파악한 중소·벤처 문제는 무엇이고 참여정부의 중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고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국내 벤처업체들은 기술력이 있는데 경영·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며 "외국처럼 벤처캐피탈이 자급분 아니라고 하여 마케팅 등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참여정부의 정책은 잘 돼 있지만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규제 완화와 정

년 실행, 기술인력 부족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정부와 업체, 대학간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현장을 뛰어다니며 정책을 보완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부와 업체간 시각 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답변했다.

비록 구체적인 답은 아니었지만 기자로 하여금 중소기업 정책과 문제에 대한 책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중기종합지원정책인 '7·7 대책'이 나온 지 2년여가 흘렀지만 기술 금융 관료 인력 등 어느 부문 하나라도 내세울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벤처 패자부활전' 등 일부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기특위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현상의 견을 수습해 기존 정책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는 廉위원장에겐도 부담이다. 참여정부 중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에서 중기특위의 수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향후 정책 조율과 대안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여론의 불매를 각오해야 한다.

간담회 다음날 廉위원장에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기사가 잘 됐다"며 "당분간 업무 파악에 주력한 후 추후 다시 간담회로 현장을 뛰어다녀하겠다"고 각오를 밝힌다. "앞으로 지켜보고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짧게나마 답변한 필자의 솔직한 심정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동문기자 회재수첩

탈북자들에게 한국은 무엇인가?

최근 KBS 1TV에서 일요일 밤에 방송하는 '취재파일 4321'이라는 매거진 프로그램 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첫 아이돌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해봤습니다. 인사 이후 줄곧 몸 담았던 2분 안무의 9시 뉴스 스타일에서 벗어나 10여분 길이의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 대한 중압감, 한편으로 데일리 뉴스와는 다른 나만의 색깔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도전 의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고심 끝에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용 씨의 이야기를 담아 보기로 했습니다.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언론계에 발을 딛게 된 이유이기도 했고, 김철용 씨의 음악 활동과 예술가로서 많은 탈북 동기가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철용 씨는 올해 33살의 젊은이입니다. 평양 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 지난 2002년 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평양 음악무용대학은 출신생분이 좋은 어린이들을 선발해 8살부터 우리의 초·중·고·대학 과정을 모두 가르친다고 하니 김씨가 북한에서 세칭 잘 나가는 집안 자제였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의 아버지는 당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대학교수였다고 자신을 소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그의 출신 배경보다 더 관심을 끈 것은 그가 무만강을 건너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들었던 리처드 클레이더만의 피아노곡 '가을의 속삭임'에 반해 이를 몰래 채보한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보위부원에게 적발돼 자기비판서를 쓴 일이 탈북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원한은 곡을 마음대로 듣고 연주할 수 없는 피아니스트.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예술의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탈북 경위와 음악활동 등 김철용 씨의 한국 생활을 담아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실들도 알게 됐습니다. 북한 관련 정부 기관들이나 탈북자 등을 통해 그의 일부 경력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언론의 부풀리기식 보도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탈북자 사회에서 자의든 타의든 출신학교나 활동 단체 등을 속이는 일이 드문 일도 아니란 말을 탈북자 본인들로부터 들었을 때는 당혹스러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먹고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 속 고통을



趙星元

(대학원97-99)

KBS 시사보도팀 기자

느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탈북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 인권 상황이 북한보다 나은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소위 학벌과 관련해서는 다른 것 같다. 조금 상위 사회를 들여다보니 명문대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벽을 느꼈다. 그런 분명한 인권 문제다." 또 다른 탈북자는 이렇듯,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

업생 많은 ○○대학을 졸업한 것은 다행으로 느낀다. 비정규직이라도 당장 취업 때부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된다." '학벌' '학연'의 구배는 탈북자들조차 피해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한 중년 탈북자는 국립대인 서울대가 탈북 2세들에게 좀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줘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김철용 씨는 자신을 두고 자사 이익대로 이리저리 재단하는 한국의 언론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보수 언론은 '봐라, 저렇게 자유가 없는 데도 인권성, 감정성이 좋다'고 그러잖나'라는 식이고, 진보 언론은 '북한에서 저렇게 인권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무조건 북한이 나쁘다고만 그러냐'는 식으로 '한대'면서 언론들간의 싸움에 자신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북자 수는 이제 9만명에 이릅니다. 그들 중 향후 통일시대 북한 사람들의 한국 사회 적응 가능성을 측정하는 '인티머스 테스트'로 보기도 합니다. '학벌' '이름 논쟁' 같은 한국 사회의 구태가 그로되 곧 절곡의 라면 그들에게 한국은 진정한 '자유'의 땅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철용 씨와 탈북 예술인 관련 제 리포트는 news.kbs.co.kr/4321의 '다시보기'에서 9월 3일자를 찾으면 '예술, 사선을 넘는다'라는 제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동 정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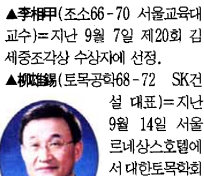
▲趙正浩(생물학48-52 한국비이오산협회 회장)=지난 10월 11일 서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仁村 金性洙 선생을 기려 제정한 제20회 仁村賞(교육부문) 수상.



▲金顯玉(법학55-59 국립국악원 현대악 예술감독)=지난 9월 1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러 교류축에서 러시아 비영리 문화재단인 스타스니민센터로부터 '2006 티쉬우'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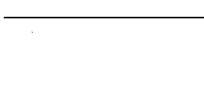
▲崔廣浩(토목공학59-65 고려대 명예교수)=지난 9월 1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토목학회 원로회원인 金炯珠(토목공학46-50 관악회 이사)등인이 사재를 출연해 제정한 제5회 松山賞(학술부문) 수상.



▲李東源(금속공학64-69 포스코 회장)=지난 10월 11일 서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仁村 金性洙 선생을 기려 제정한 제20회 仁村賞(산업기술부문) 수상.



▲李海根(조선66-70 서울교육대 교수)=지난 9월 7일 제20회 김세종조각상 수상자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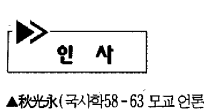


▲柳德錫(토목공학68-72 SK건설 대표)=지난 9월 1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토목학회 원로회원인 金炯珠(토목공학46-50 관악회 이사)등인이 사재를 출연해 제정한 제5회 松山賞(기술부문) 수상.

기려 제정한 제20회 仁村賞(자연과학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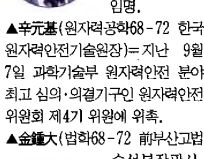
▲柳仁鈞(의학84-88 모교 신경정신과 교수)=지난 9월 5일 미국 최대 민간 연구비 수여 기관인 정신건강연구연합(NARSAD)이 주는 '중년 연구자상' 수상자에 선정.



▲李寅生(전기공학86-90 고려대 교수)=최근 미국 전기전자학회와 대한전기공학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1회 IT경은 과학기술상 수상.



▲秋光永(국사학58-63 모교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한국고고학회 무니케이학회회장)=지난 9월 4일 KBS 아시아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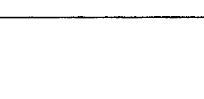
▲金信一(교육공학59-63 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지난 9월 20일 국회 인준을 거쳐 부총리 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취임.



▲金容德(사학63-67 모교 국제대학원장·국사편찬위원회 위원)=지난 9월 1일 동북아역사재단 초대 이사장에 임명.



▲辛元基(원자력공학68-7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지난 9월 7일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 분야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제4기 위원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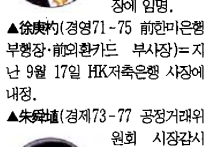


▲金鍾大(법학68-72 前부산고법 수석부장관·사찰원 지방법원장)=지난 9월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曹宇鉉(행정원72 前간설교봉 부 차관·법무법인 로고스 고문)=지난 9월 1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선임.



▲徐允錫(교육학71-75 前교육인적자원부 차관)=지난 9월 4일 임기 3년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



▲徐庚杓(경영71-75 前한미은행 부행장·前의한카드 부사장)=지난 9월 17일 HK저축은행 사장에 내정.



▲朱東植(경제73-7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 본부장)=지난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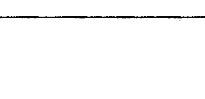
▲李東煥(경제74-7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본부장)=지난 9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임명.



▲陸榮堉(법학74-78 前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차장)=지난 9월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국제문화재단원장과 석좌교수로 추대.



▲金熙玉(신대원76 前사법연수원 부원장·前서울동부지검장·법무부 차관)=지난 9월 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국제문화재단원장과 석좌교수로 추대.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국제문화재단원장과 석좌교수로 추대.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국제문화재단원장과 석좌교수로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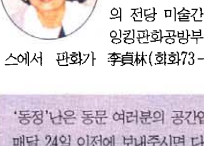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국제문화재단원장과 석좌교수로 추대.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국제문화재단원장과 석좌교수로 추대.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국제문화재단원장과 석좌교수로 추대.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국제문화재단원장과 석좌교수로 추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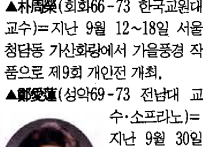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국제문화재단원장과 석좌교수로 추대.

77)·全慶鈺(조소75-80)·朴顯澈(회화75-79)등인과 함께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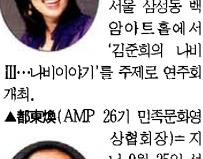
▲姜政鎬(전기공학65-69 한국정보통신대 교수·한국광인터넷포럼 의장)=지난 9월 1일 중국 북경에서 일련광 인터넷포럼·중국광인터넷포럼과 광네트워크 기술 전반에 걸친 기술정보·인력 교류 협력 약서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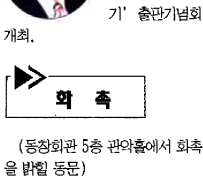
▲林周榮(회화66-73 한국고원대 교수)=지난 9월 12~18일 서울 청담동 가신화랑에서 가을풍경 작품으로 제9회 개인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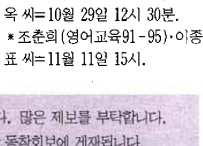
▲鄭愛蓮(성악69-73 전남대 교수·소프라노)=지난 9월 30일 미국 LA 한국문화재단 Art홀에서 현재제, 드뷔시, 비제 등의 작품으로 독창회 개최.



▲高賢珠(기악83-87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하프시코드교수)=오는 10월 19일 서울 정동대 한성궁회 서울성당에서 바하 건반악악 전곡 연주 및 해설.



▲金俊希(국악90-94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해금수석 단원)=지난 10월 11일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김준희의 내비'를 주제로 연주회 개최.



▲鄭東煥(AMP 26기 민족문화원 상임회장)=지난 9월 25일 성균관유림회관에서 '하늘이 내린 다섯 효자 이야기' 출판기념회 개최.

학 속

(동정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

- 김세경(미술학85-89)·박미리 씨=10월 21일 13시.
- 임경준(농촌사회교육91-99)·유수진 씨=10월 28일 12시 30분.
- 김영식(화학공학92-98)·김선욱 씨=10월 29일 12시 30분.
- 조준희(영어교육91-95)·이종표 씨=11월 11일 13시.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정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 화 : 02)702-2233 · 팩 스 : 02)703-0755

신 간

북위38도선 (상·하)

— 鄭源石 저음



장편소설.

이제까지 몰려있던 동해 남부 빨치산 시령부의 활동을 증언을 토대로 생생하게 그려냈다. 동해 남부 전구 남도부 참모장으로 활동했던 성일기의 증언을 바탕으로 빨치산의 전쟁 기록과 그 전쟁을 온몸으로 겪은 한 청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성일기의 성장과 월북 행적, 전설적인 빨치산이었던 남도부 시령관 밑에서 참모장을 지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된 한 청년의 고뇌를 사실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교학사판·값 10,000원)

귀거래사(歸去來辭)

— 朴燦久 저음



첫 번째 시조집.

문학평론가인 가톨릭대 金奉泰

와 그의 사 출신으로 한국소설가협회, 한국문인협회 회원인 鄭源石 (의학52-58) 동문의

(국어교육60-64)교수는 이 시조집의 평설에서 "노산이 귀거래사를 쓰며 찾아든 고향은 배꽃과 진달래꽃이 피는 자연 낙원 그것이었다. 또한 그곳은 개인사에서 민족사로 확장되는 역사의 피발이기도 했다. 거기에는 인고에 찬 모성이 있었고, 노기 머금은 부성의 파멸음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민족의 젖줄 한강에서 평화의 지평을 본다. 그리고 마주치는 이 땅 山河 도처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며 그리움을 아로새긴다"고 평했다. (도서출판 동경·값9,000원)

— 吳世鈞 저음

그 서늘게 개인 자리



吳世鈞(의학59-65 한국문인협회 회원)동문이 패변 자전적 성장소설.

넋이나 칼의 날과 자루를 이어주는 부분을 '슬베'라고 한다. 기성세대들이 이해 안 되는 청소년. 기를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책은 지난 반세기 한국의 역사 속에서 지나간 한 한국인의 성장과 자아 발견 과정을 주관적 체험과 외식 흐름의 묘사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 (푸른길·값9,000원)

CEO여,

문화코드를 읽어라

— 崔正浩 저음



교수가 비즈니스 인생에서 겪은 문화 코드의 중요성에 관한 체험을 담았다.

崔교수는 1973년부터 대우캐리어 사장·대우자동차판매 사장 등을 맡아 26년간 대우 그룹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50개국을 방문했고,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7년여 동안 해외 주재 생활도 했다.

崔교수는 국가 리더들이나 기업 CEO는 단순히 업무상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문화에 깔린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삼과삼·값9,000원)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 金秀行 저음



환과 그것에 따른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설명한 책.

이 책은 공황이론과 현실의 공황분석이라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뉜다. 이론부분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공황이론의 여러 갈래를 자세하게 정리하고 비판하면서 그

들의 합리적인 핵심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현실의 공황분석에서는 1970년대 이후의 경제위기와 공황에 집중하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 경제의 금융화, 1997년 말의 한국 공황, 재국주의, 세계공황의 가능성 등을 다뤘다. (서울대출판부·값20,000원)

시장경제와 법

— 權五乘 저음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담았다.

또 우리나라 법질서의 기본인 사적 자치와 법치주의에 대하여, 계약자유, 재산권 보장, 과실책임 그리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소비자보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서울대출판부·값21,000원)

한국생활풍수와 조정

/명당풍수와 조정수목

— 李大雨 저음



송현R&D로개발부 부사장이李大雨 (한대원75-77 서문풍수조경연구소 대



표)동문이 쉽게 풀이한 전문 생활풍수와 환경의 맞춤조경을 전해주는 지침서.

“한국생활풍수와..는 生氣福德을 위한 음택, 양택, 사주 음양오행의 상생풍수요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주맞춤조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풍수와 조경의 분야에 대한 학문적 영역을 크게 확대했다. 풍수지리 전문사인 '명당풍수와..'는 명당풍수관한 사례를 소개하고, 조정설계 계획 시공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1백여 종의 조정수목에 대한 특성과 용도를 수록해 생활풍수조경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일진사판·값52,000원/28,000원)

마음을 다스리는 산행

— 李碩岩 저음



-80 전국버스연합회 상임부회장) 동문의 수필집. 2004년부터 3년 동안 안내산악회를 따라 전국 16개의 명산을 답사하면서 경험한 생생한 산행후기를 담았다.

이 책에는 국립공원인 북한산·설악산·치악산·계룡산·변산·소백산, 도립공원인 남한산·선운산·무등산·청량산, 그리고 일반산인 명성산·운악산·청옥산·방태산·용봉산·희양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예세이판·값10,000원)

平生 한번 모교발전과 동창회 결속 및 활성화를 위한 회비납부

동창회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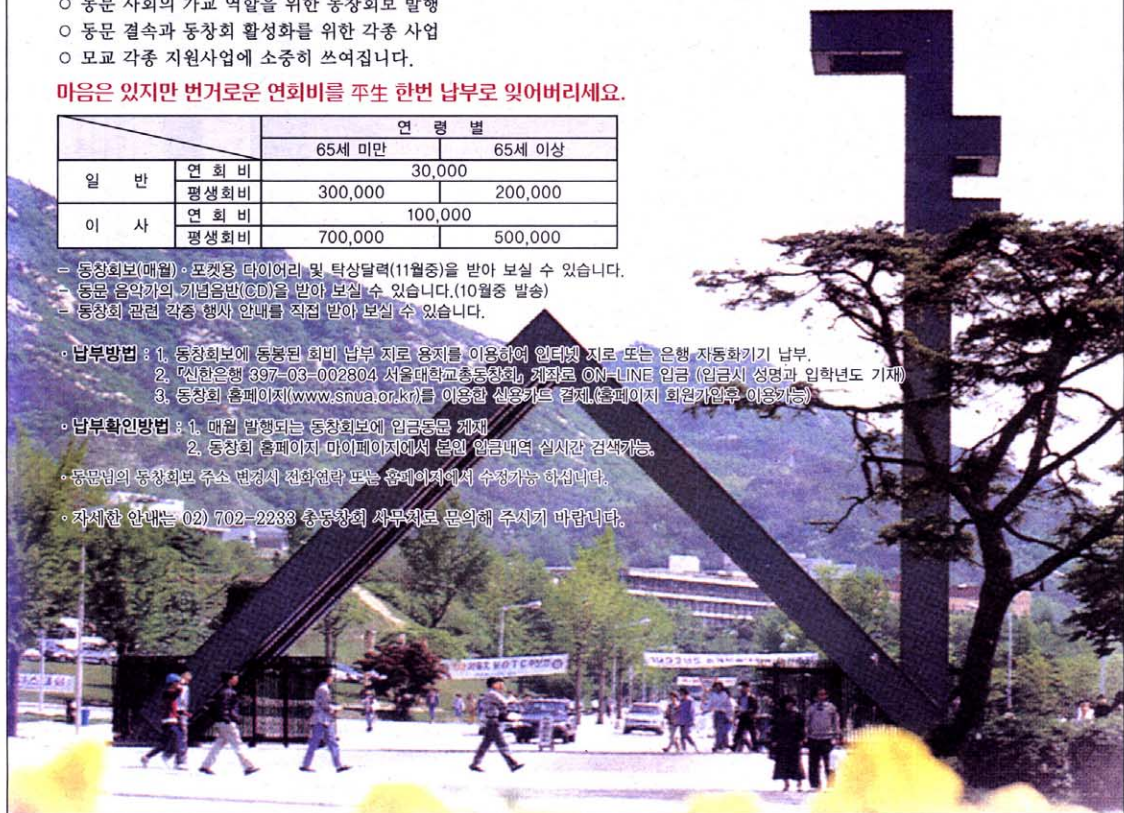
- 후배들의 장학사업
- 동문 사회의 가교 역할을 위한 동창회보 발행
- 동문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모교 각종 지원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번거로운 연회비를 평생 한번 납부로 잊어버리세요.

		연 령 별	
		65세 미만	65세 이상
일 반	연 회 비	30,000	
	평생회비	300,000	200,000
이 사	연 회 비	100,000	
	평생회비	700,000	500,000

- 동창회보(매월)·포켓용 다이어리 및 탁상달력(11월중)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문 음악가의 기념음반(CD)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10월중 발송)
- 동창회 관련 각종 행사 안내를 직접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1. 동창회보에 동봉된 회비 납부 지로 용지를 이용하여 인터넷 지로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 납부.
2. 신한은행 397-03-002804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계좌로 ON-LINE 입금 (입금시 성명과 입학년도 기재)
3. 동창회 홈페이지(www.snu.or.kr)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이용가능
- 납부확인방법 : 1. 매월 발행되는 동창회보에 입금동문 게재
2. 동창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입금내역 실시간 검색가능.
- 동문님의 동창회보 주소 변경시 전화연락 또는 홈페이지에서 수정가능 하십니다.
- 자세한 안내는 02) 702-2233 총동창회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2006년 7-8월 납부자/연회비: 이사(06. 6. 29.~7. 26.)·일반(06. 6. 29.~7. 25)

원내 숫자: 입학년도(미확인사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李世中=50만원
△부회장 丁海昌=1백만원
△부회장 鄭永勳=1백만원
△부회장 許鐵奎=1백만원
△부회장 孫吉宗=1백만원
△부회장 金明子=50만원
△부회장 吳 明=50만원
△부회장 玄在晳=1백만원
△감 사 宋成民=30만원

살일이사

△李東煥ACAD동창회장은 20만원
△鄭正信韓대원동창회장은 20만원
△姜東求보내원동창회장은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김관영 AMP⑤
△김용익 외대③ △김종열 AIP③
△박상근 문대⑤ △윤승기 법대⑥
△이희숙 사대⑥ △임영일 수의⑥
△조병현 ACAD⑤ △조장호 문대⑥

(일반) △강동욱 법대⑥
△강민규 경영⑥ △강현주 미대⑥
△고영희 외대⑤ △김 완 공대⑥
△김강권 농대⑥ △김경수 공대⑥
△김경재 문대⑥ △김계태 외대⑥
△김기환 외대⑥ △김남두 사회⑥
△김도현 문대⑥ △김동주 미대⑥
△김문일 문대⑥ △김백주 AMP⑤
△김부시 법대⑥ △김상은 윤대⑥
△김상훈 치대⑥ △김서환 ACAD③
△김선재 AMP③ △김신주 약대⑥

△김선홍 약대⑥ △김양욱 ALP③
△김영만 AMP⑤ △김영민 공대⑥
△김우성 공대⑥ △김윤자 AMFR③
△김은진 사대⑥ △김익희 AOM②
△김재현 ALP② △김종락 상대⑥
△김종성 의대⑦ △김지은 약대⑥
△김진우 공대⑦ △김현정 치대⑥
△나연수 공대⑥ △나영수 공대⑥
△남궁근 SGS⑤ △노부호 공대⑥
△노태식 AMP⑤ △노환성 약대⑥
△류민영 AMP⑥ △류승문 공대⑦
△류해진 공대⑥ △박 철 공대⑥
△박기정 문대⑥ △박상근 법대⑥
△박상근 법대⑥ △박수용 공대⑥
△박원철 인문⑥ △박종욱 치대⑥
△박진석 공대⑥ △박진주 사회⑥
△박찬구 AMP⑤ △박혜진 의대⑥
△반정우 법대⑥ △방경숙 간호⑥
△배삼만 사회⑥ △배현범 미대⑥
△백경수 자연⑦ △백성호 AMP⑥
△백승호 공대⑥ △백재홍 법대⑥
△부덕권 AMP⑦ △사광진 간호⑥
△서범주 문대⑥ △손기영 사대⑥
△손승태 공대⑥ △손화래 ALP①
△손호복 상대⑥ △송수남 사대⑥
△송진식 상대⑥ △송현길 농대⑥
△송홍식 의대⑥ △송현준 ALP②
△신병식 인문⑥ △신의호 공대⑥
△신인철 사회⑥ △신종계 공대⑥
△신종대 법대⑥ △신준희 문대⑥
△삼동성 ALP② △안동원 외대⑥
△양수화 AMP⑤ △양정모 경영⑦
△양해준 농대⑥ △염기정 약대⑥
△염경애 사대⑥ △오병철 공대⑥
△오천용 미대⑥ △오태경 법대⑥
△유인수 법대⑥ △유관식 농대⑥
△유교원 공대⑥ △유영미 법대⑥
△유재준 약대⑥ △유윤은 간호⑥
△유훈기 치대⑥ △이강원 AIP③

△이경은 윤대⑥ △이광호 상대⑥
△이귀환 미대⑥ △이대훈 공대⑥
△이동현 법대⑥ △이만규 의대⑥
△이보창 ALP③ △이보호 공대⑥
△이상인 사회⑥ △이석주 공대⑥
△이영숙 윤대⑥ △이영진 경영⑥
△이영택 공대⑥ △이원규 법대⑥
△이윤희 수의⑥ △이재택 공대⑥
△이재연 윤대⑥ △이정식 인문⑥
△이재훈 공대⑥ △이종익 문대⑥
△이종만 의대⑥ △이종용 공대⑥
△이진오 AMP⑤ △이하정 의대⑥
△이홍근 AMP④ △임병택 치대⑥
△임우근 AIP⑦ △임종윤 AIP⑥
△임창배 윤대⑥ △정길성 공대⑥
△정유경 가정⑥ △정호남 공대⑥
△정성찬 공대⑥ △정영숙 사대⑥
△정연표 문대⑥ △정광섭 상대⑥
△정다일 인문⑥ △정동윤 법대⑥
△정선영 윤대⑥ △정영안 윤대⑥
△정원식 의대⑥ △정인용 문대⑥
△정재욱 사회⑥ △정창욱 의대⑥
△정현용 농대⑥ △정태성 상대⑥
△정태목 치대⑥ △정하석 공대⑥
△조기승 사회⑥ △조기호 사대⑥
△조문희 사회⑥ △조성국 의대⑥
△조성희 ACAD⑥ △조영민 인문⑥
△조우성 ALP① △조종대 AMP⑥
△조진국 공대⑥ △조현우 법대⑥
△지근진 농대⑥ △지철근 공대⑥
△진종범 치대⑥ △채영재 치대⑥
△최경은 약대⑥ △최상보 공대⑥
△최석원 공대⑥ △최이기 AMP④
△최재배 사회⑥ △한규록 의대⑥
△한동훈 농대⑥ △한상민 공대⑥
△한승주 문대⑥ △한신호 공대⑥
△한영철 공대⑥ △한장섭 공대⑥
△한용민 行院⑦ △홍영선 수의⑥
△홍윤기 AIC① △황윤식 공대⑥

이 사

◆인문대 △김인배⑥ △문상원⑥
△송기국⑥ △정기평⑥ △정동영⑥
◆사법대 △김동선⑥ △김부상⑥
△김선기⑥ △김정봉⑥ △안정근⑥
△압현택⑥ △유진석⑥ △정덕주⑥
△최종선⑥
◆자관대 △유봉희⑥ △윤태석⑥
△이동환⑥ △이명애⑥ △전승준⑥
△최진혁⑥
◆간호대 △김명숙⑥ △박상련⑥
△정병석⑥
◆경영대 △국기호⑥ △김문수⑥
△윤철수⑥ △임근희⑥ △임종민⑥
◆공대 △강익철⑥ △구영호⑥
△구형모⑥ △권오동⑥ △권익현⑥
△권정현⑥ △김교섭⑥ △김국수⑥
△김도환⑥ △김동성⑥ △김명환⑥
△김병길⑥ △김순환⑥ △김승희⑥
△김연철⑥ △김용환⑥ △김인상⑥
△김정연⑥ △김종필⑥ △김태갑⑥
△김희준⑥ △노형민⑥ △문종길⑥
△박노상⑥ △박상덕⑥ △박순자⑥
△박의승⑥ △방정운⑥ △변재환⑥
△부정렬⑥ △송인행⑥ △송태영⑥
△신영수⑥ △신원기⑥ △신재철⑥
△안산은⑥ △여인희⑥ △염기대⑥
△우세훈⑥ △유관섭⑥ △유성철⑥
△윤병권⑥ △윤석민⑥ △이남준⑥
△이동진⑥ △이만수⑥ △이성경⑥
△이성규⑥ △이성팔⑥ △이성호⑥
△이승우⑥ △이승환⑥ △이영길⑥
△이용경⑥ △이윤표⑥ △이문우⑥
△이일환⑥ △이주선⑥ △이정훈⑥
△이필원⑥ △이향배⑥ △이희기⑥
△임두호⑥ △장기봉⑥ △장재철⑥
△장종근⑥ △정익주⑥ △정재영⑥
△조구식⑥ △채수환⑥ △천동락⑥
△최경준⑥ △최병훈⑥ △최영명⑥
△최우만⑥ △한도석⑥ △한홍희⑥
△허욱렬⑥ △현범수⑥ △홍대형⑥
△황 철⑥ △황성호⑥
◆농대 △고동희⑥ △김시홍⑥
△김용득⑥ △김종환⑥ △김하규⑥
△서종혁⑥ △유문일⑥ △유시우⑥

△이대진⑥ △이재기⑥ △이치섭⑥
△이현범⑥ △전승훈⑥ △정봉진⑥
△채재현⑥ △최규영⑥ △최승호⑥
△홍갑선⑥ △홍승명⑥
◆문리대 △강신성⑥ △구평희⑥
△김경화⑥ △김상박⑥ △김용국⑥
△김태송⑥ △김호준⑥ △남궁권⑥
△박종관⑥ △배규환⑥ △병중현⑥
△서옥식⑥ △송대성⑥ △양철주⑥
△오완영⑥ △유영익⑥ △이 용⑥
△이기원⑥ △이기현⑥ △이종현⑥
△이철배⑥ △임석진⑥ △정영수⑥
△정기호⑥ △정영두⑥ △조갑욱⑥
△주영길⑥ △최남석⑥ △최승언⑥
△허우경⑥
◆미대 △권기윤⑥ △김경민⑥
△서경덕⑥ △최민호⑥
◆법대 △강동세⑥ △고영현⑥
△권영상⑥ △김문근⑥ △김수철⑥
△김영우⑥ △김영재⑥ △김종양⑥
△김진우⑥ △김철수⑥ △김희종⑥
△류수철⑥ △민수광⑥ △박영범⑥
△배용범⑥ △백준현⑥ △서 민⑥
△신영길⑥ △오영진⑥ △윤보욱⑥
△이강남⑥ △이동명⑥ △이문재⑥
△이순배⑥ △이신철⑥ △이윤용⑥
△이우근⑥ △이원규⑥ △이재홍⑥
△이종환⑥ △이주성⑥ △이희원⑥
△장기욱⑥ △장선명⑥ △전병식⑥
△재차환⑥ △조규홍⑥ △조수현⑥
△조준용⑥ △조현필⑥ △조우식⑥
△최병구⑥ △최종원⑥ △한영광⑥
△홍경식⑥ △황규정⑥ △홍이연⑥
◆사대 △강경돈⑥ △강성주⑥
△박병선⑥ △구병현⑥ △김경애⑥
△김기주⑥ △김병식⑥ △김영찬⑥
△김원복⑥ △김준문⑥ △남상민⑥
△민경진⑥ △민현식⑥ △박교식⑥
△박병배⑥ △박영배⑥ △박영태⑥
△안준현⑥ △유영수⑥ △유경식⑥
△윤익모⑥ △윤재석⑥ △이성호⑥
△이양지⑥ △정은실⑥ △조 욱⑥
△한기선⑥ △홍성현⑥
◆상대 △강성원⑥ △권원규⑥
△강정구⑥ △구선화⑥ △김도승⑥
△김동식⑥ △김만우⑥ △김병준⑥
△김항덕⑥ △남상덕⑥ △노일봉⑥

△맹정주(△박 건(△배정운(△백익기(△백정기(△사공일(△선상도(△송필호(△안재원(△연건호(△오한구(△윤은용(△윤익수(△이규수(△이민준(△이영희(△이영서(△이영선(△이영준(△이택섭(△정윤문(△정익준(△정환(△조근목(△진영수(△진철병(△최명규(△최정호(△추준석(△한재봉(◆생필대 △남남순(△서해석(△조혜옥(◆수익대 △김정중(△나경숙(△김국순(△신도균(△이 준(△이상민(△이상성(△정진석(△주영식(◆약대 △김수웅(△김영식(△김정호(△김충경(△박사룡(△서병기(△서해린(△송창진(△유영근(△이해정(△정정일(△조기찬(△자상구(△최준우(◆몰대 △김미경(△유형웅(△이규용(△이명범(△이준복(△장우영(△하주희(◆의대 △고영재(△권영현(△김정일(△김영진(△김문식(△김종호(△김종환(△문정주(△박귀원(△박양희(△방영주(△석상복(△송영주(△안병완(△우영준(△이광우(△이범구(△이성규(△이승훈(△최정운(△한종수(◆치대 △김 무(△김덕성(△김성근(△박옥련(△변영남(△송진일(△이기택(△이윤상(△장삼철(△정상주(△한광희(◆대학원 △김명관(△김홍렬(△민경식(△박민수(△박익환(△박효준(△윤용훈(△윤규구(△이광재(△이시운(△하종욱(◆경대원 △김선대(◆교대원 △송창섭(◆보대원 △정두채(◆신대원 △파소진(◆행대원 △구기성(△권문용(△김동수(△김영희(△김장일(△김종자(△박관산(△이상하(

◆화대원 △김종원(△김철복(△라경자(△박상락(△정병철(◆AMP △김충배(△남현일(△리종익(△홍원기(◆AP △고상연(△김상진(△장희현(△전영하(△함돈식(△홍원진(◆ACAD △김규훈(△이은홍(△조홍규(◆SGS △김종호(△박영중(△박종영(△오원석(△오한봉(△윤범수(△이기재(△이정진(△이정근(◆APC △고종석(△신관순(△정만모(◆HPM △김복희(△송정순(△윤기남(◆AC △김익동(△김강복(△이경희(◆GLP △손영수(

일 반

◆인문대 △김광목(△임정석(△이소일(△이정복(△이호석(△정효재(△황세림(◆사회대 △구윤철(△김대영(△김정수(△김준하(△노창현(△박상훈(△박해선(△박현성(△방영식(△변희구(△송은영(△유해린(△이동미(△이수현(△이재선(△임찬우(△정지영(△정현민(△채 준(△황용근(◆자연대 △권순재(△류지훈(△소상원(△이승원(△이혜진(△최나래(◆간호대 △김형선(△이용아(△이지우(△정경희(◆경영대 △김 현(△김종문(△김호민(△박철희(△서준호(△송윤환(△신원순(△장보훈(△전기수(△전미성(△하형석(△한진웅(◆공대 △고상철(△구세환(△관오석(△김동구(△김법진(△김병주(△김성훈(△김영민(△김정현(△김종환(△김취중(

△박병철(△박원철(△박의종(△박재서(△박준호(△박종연(△박희정(△배익환(△변정규(△변정근(△송정식(△신동성(△신현국(△안 용(△양동철(△오세현(△오인수(△원종호(△문도홍(△문정목(△윤홍준(△이남일(△이상용(△이석규(△이신형(△이승훈(△이양훈(△이유희(△이우연(△이윤환(△이정명(△이종근(△이진기(△이창섭(△이학성(△장성호(△장재우(△전승홍(△정우영(△정무재(△조영진(△조원환(△조현준(△지박선(△최상보(△최원석(△최찬식(△하태훈(△한세진(△한신희(△한필희(△함태용(△황유동(◆농대 △김태형(△고석주(△고화근(△김강성(△김재봉(△김재윤(△김지환(△김한철(△민병선(△박근배(△박태정(△박용진(△박정수(△백아빈(△설권석(△임태영(△유근영(△유근하(△유순호(△이정희(△이계진(△이가순(△이범희(△이병천(△이문규(△이정근(△정관출(△정수성(△최성민(△하정수(△홍기혁(△홍성민(△황영지(◆문리대 △강기진(△곽만성(△권영현(△강강선(△김병환(△김석진(△김성무(△김순태(△김승우(△김영민(△김찬중(△김홍수(△박상우(△박희준(△신규철(△심상걸(△오래대(△정경식(△정영의(△최수철(△한철순(◆미대 △강대성(△고완석(△권경연(△김미혜(△김형민(△박현일(△유영일(△이정섭(△정성원(△최선동(◆법대 △강우영(△곽영호(△권순형(△김민복(△김시형(△김태욱(△김철진(△박병명(△박정우(△박우연(△박찬호(

△배주연(△부준호(△심재돈(△안배준(△연재현(△유성근(△유태길(△윤서성(△이귀호(△이돈우(△이수모(△이원기(△이한구(△장동원(△장인현(△진경우(△조세연(△차유경(△한상술(△허만조(◆사대 △강민정(△김윤상(△김관섭(△김광준(△김성태(△김진원(△류경숙(△박상대(△박상목(△박유성(△석경진(△신동성(△심영자(△임동일(△오성진(△윤덕성(△윤학진(△이달라(△이배기(△이상구(△이석현(△이성진(△이준희(△장경원(△전종숙(△정문환(△정연순(△최정숙(△한준근(△황기탁(△홍종영(◆상대 △권찬준(△권혁남(△김민현(△김성규(△김성열(△김정환(△박용민(△박정희(△신위철(△심소일(△양경환(△윤기현(△이상철(△이승돈(△이영구(△채부영(△채수현(△태종렬(◆생필대 △맹득현(△김원기(△김경숙(△김병경(◆수익대 △박유순(△서동일(△이상인(△이상직(△최정열(△문병우(△박영선(△반비지(△송희성(△옥치연(△유성열(△윤홍준(△이정석(△이해돈(△정현경(△주승재(△최정현(△홍은기(◆몰대 △김상원(△김수희(△김은애(△이정희(△이효순(△정선영(△조유리(△황수아(◆의대 △강진규(△구철화(△김민석(△김동명(△김득구(△김영태(△김도균(△노원영(△송송식(△원차원(△유경종(△유정현(△유정용(△이상문(△이용일(△이원기(△이하정(△임수재(△장기원(△정용희(△최대진(△한석선(◆치대 △김민석(△김성중(

△김재윤(△김정우(△김정태(△김진철(△김현진(△우영식(△이상민(△이재명(△이재학(△이종범(△이종우(△조광현(△황성림(◆대학원 △박미경(△박용중(△송윤경(△문도순(△채준근(△한홍진(◆경대원 △박재범(△이주성(◆보대원 △김진현(△이귀영(△이진경(△정정근(◆신대원 △유종일(△이인원(◆행대원 △김영철(△심윤수(◆화대원 △허 완(△황용득(◆AMP △김규성(△김성환(△나영호(△노정호(△류민영(△손성섭(△우태명(△윤성민(△이명의(△정재성(△황규현(◆AP △권경아(△김진구(△나기환(△문규원(△박종호(△임종윤(◆ACAD △서대일(△이영숙(△조성희(△현세욱(◆ACP △김명철(△남궁재(△박병수(△오상훈(△임경상(△조봉규(◆SGS △김상희(△이문호(△한현구(◆APC △임희수(△송필우(◆HPM △이남우(△한종길(◆AC △김영주(△박성윤(◆AMFFRI △김정훈(△남상민(△박명규(△이강우(△이철중(△이유인(◆ACMP △정준근(◆IP △고영수(△구귀선(△신재섭(△윤백호(△윤정자(△이은성(△이필우(△이호경(◆ALP △김광주(△이정환(△차원진(

7·8월 계 : 92,489,802원
평생회비 : 55,100,000원
입 회 비 : 720,000원
총 계 : 1,046,306,533원